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어 설 뜬 천 사

『The Unfinished Angel』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고 시 연

2012년 8월

# 어 설 픈 천 사

『The Unfinished Angel』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원 보

고 시 연

이 논문을 통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고시연의 통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①

위 원\_\_\_\_\_①

위 원\_\_\_\_\_①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2년 8월

# The Unfinished Angel

Si-yeon Ko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ugust 20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thesis is a translation of the book, *The Unfinished Angel* by Sharon Creech.

There is an angel who lived in the inside of mountain of Switzerland for over the hundreds of years. The angel always thinks it is not perfect to become an angel so that it always looks for some missions to complete its job. It believes to become the finished angel when complete all its job. Recently Mr. Pomodoro and his daughter Zola moved into this village from America. Mr. Pomodoro wanted to find a new life and open an international school. Only Zola saw the angel's existence and she wanted to join the angel's missions. They became to live in a Casa Rosa tower. One day, they found hungry children in a chicken shed. The children were orphan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they have no places to live. Zola and angel try to help them to live safely in this village. As angel finishes mission one by one, it find its identity then realized nothing is perfect in this world but everyone tries to be perfect just like the unfinished angel.

Like wise, the story of this book covers all ages from child to adult. In this book, readers will be hook into the characteristic style of writer and creative angel words which are combined with two languages of Italian and English. This book draw a source of inspiration for people who are bored of their daily routines. The story gives you wisdom of life.

## 감사의 글

책 한권을 읽어가는 독자의 입장과 영어로 된 책 한권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나가는 과정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로 쓰는 번역이란 작업을 했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사람을 알게 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나에게 가장 부족했던 책임감을 심어 주었다.

먼저, 부족한 제 논문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저를 아껴주신 박경란 교수님, 한마디 말로 인생과 번역을 가르쳐주신 김재원 교수님, 부족한 제자를 뒤서 고생만 하셨던 김원보 지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유쾌하게 웃고, 즐거웠던 일들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등살에 못 이겨 밤새 논문 읽으며, 체크해준 첫 나의 영어쌤 울언니, 맞춤법 교정해준 형부, 이모바보 조카 선후, 멀리서 매일 영상통화로 응원해준 현실적인 조언자 오빠, 머리 식히라며 드라이브 시켜준 새 언니, 끼니 거를까, 추레하게 옷 입고 다닐까 걱정하시는 아빠, 내 걱정으로 밤새 잠 못 이룬 엄마, 고마워요. 이제 두 다리 뻗으시고 폭 주무세요. 나의 소중한 학창시절을 함께하며, 도대체 논문의 끝은 어디냐며 웃게 해 준 동아리 친구들, 제로하나 친구들, 못하는게 없는 올 웨이즈 땡스 투 동네주민, 도서관에서 항시 대기하며 격려해 준 동완 오빠와 제선이네와 후배님, 밥 잘 사준 정규직 양찌랑 인회, 생각이 통하는 원미, 정서적 동반자 나래, 모두에게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끝으로, 첫 만남부터 따뜻하게 챙겨준 강안나언니, 갑작스런 부탁에도 흔쾌히 논문 검토해 준 든든한 현애언니, 늘 가까이 있는 우리 조안나언니, 대학원 생활 서로 의지하며 보낸 혜진이를 비롯해서 11기 학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시선들이 때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까워서 걱정하고, 지켜봐 준분들 덕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느꼈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샤론 크리치

‘두개의 달 위를 걷다.’ 작품으로 뉴베리상 수상.

## 어설픈 천사



## 목차

사람들	1
내가 하는 일	1
침입자들	2
포모도로씨의 딸	3
나의 탑	4
졸라	6
천사란 무엇일까?	8
졸라의 패션	9
디비노가(家) 사람들	10
머리카락과 발바닥	11
긴급한 문제	12
곤란한 상황	14
비니의 폭발	15
일 비스토(짐승)	17
포모도로씨	18
내 영역	22
한밤중에 확확	25
포케타	25
걱정의 도가니	26
성난 사람들	27
부모들은 어디에?	29
산들의 내부	30
허락	31
무슨 뜻이지?	32



시간이란?	36
지상낙원	37
아빠들의 성격	39
디비노 부인의 본성	40
더 큰 문제	42
비니의 드럼	43
라비올리	45
미트볼	47
졸라의 성격	50
저승	52
졸라가 알고 있는 것들	53
염소	54
더 많은 사람들	55
유지니아	57
비둘기들	60
도마뱀들	63
시장님	65
루이	67
이런 날	69
천사가 아는 것	70

## 사람들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때로는 말도 안된다. 머리에서 뇌가 떨어져 나온 걸까? 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들고, 말을 하고, 입 밖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일까? 왜 그렇게나 많이? 왜 조용히 있지 못할까?

## 내가 하는 일



나, 나는 천사다. 나는 모든 언어로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무엇인가 어설피다. 또한, 특별한 임무도 없다. 나는 훈련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임무는 무엇일까? 나는 받은 임무도 없다. 나는 임무를 찾기 위해 까사로사(Casa Rosa:분홍색 집) 석탑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자유롭게 산골 마을을 오고 가고, 산책로를 따라 호수 위를 자유롭게 떠다니며, 순식간에 확하고 알프스 산맥에 있는 오두막까지 갔다 온다. 낮에도 밤에도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휘소리를 내며 다닌다. 날아다니는 것과 휘휘 돌아다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나는 요즘 디비노 부인과 손자 비니 때문에 너무 바쁘다. 이들은 디비노(dinivo:신성한)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변덕스럽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든다. 디비노 부인은 소곤소곤 거리며 험담을 하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일으킨다. 덩수룩한 머리를 한 손자 비니는 말썽을 부리고 나서 다른 아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 누구의 말도. 아시겠죠? 아무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나는 가끔 그 아이를 꼬집

는다.

하지만 이게 내 목적일까? 혼자서 이 디비노가(家)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성향의 사람들에게 슬한 고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이따금씩 이 사람들을 꼬집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천사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걸까? 나 혼자만 혼란스러운 것일까? 난 완벽하지 않은, 좀 덜 떨어진 천사인가 보다.

## 침입자들



나는 가끔 디비노 머리에 솔방울을 던지고 싶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까사로사로 이사 온 미국인 아저씨와 그의 딸 머리에도 던지고 싶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땅에서 솟았나? 누가 나의 까사로 오게 한 거야?

미국인 포모도로씨는 키가 크고, 얼굴은 말을 하거나 말조차 하지 않을 때에도 볼과 코와 눈이 움직이는 주름지고, 고무처럼 탱탱하다. 아저씨는 여기에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 그저 그런 학교가 아니라 “최고 중의 최고”인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 포모도로씨는 이웃인 디비노 부인에게 “우리는 세계의 모든 아이들을 불러모아서, 사이좋게 지낼 겁니다!” 라고 말했다.

농담하는 것일까?

"우리 학교에는 터키인과 독일인 학생도 받을 겁니다." 포모도로 아저씨가 말했다. “이라크와 프랑스, 독일과 중국, 스위스와 네덜란드, 한국과 브라질, 이스라엘과 스웨덴 사람 등 등 모두 다요!” 아저씨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행복한 생각으로 눈과 코를 찡긍 거렸다.

디비노 부인은 마치 자기가 거위라도 삼킨 것처럼 쳐다봤다. 부인은 이 작은 산골 마을에 모든 사람들을 들인다는 생각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았다. "미국인들도 받을 건가요?" 부인이 물었다.

"미국인이요?" 포모도로씨는 내 석탑을 힐끗 보더니 마치 입 안에서부터 입맛

을 보듯이 입술을 움직이며 말했다. "물론이죠."

디비노 부인은 구부러진 손가락 하나를 세워 그를 가리켰다. "까사로사에 뱀이 있어요."

포모도로씨는 눈을 깜빡거렸다. "뱀이요?"

"뱀이 많아요."

"많다고요?"

디비노 부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기어가듯 까사로사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검정 뱀들이 많고 많아요." 웃으며 말했다.

포모도로씨도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저씨가 말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 포모도로씨의 딸



포모도로씨에게는 딸이 있다. 최소한, 나는 그 애가 같은 날 마을에 도착했고, 같은 집에 살고 있어서 그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빠를 닮지는 않았다. 어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엄마는 보이지 않는다. 벽난로 선반 위에 어린 남자 아이 사진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모른다,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그 애 이름은 즐라이고, 무엇인가에 놀란 듯 곤두선 머리에 몸은 잔나무가지처럼 말랐다. 크고 까만 동공에 회색을 띤 그 아이의 눈은 소처럼 크고 둥글었다. 즐라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과 함께 자란 새끼 사슴 같았다. 아니면 까마귀가 기른 박새 같았다. 잘 모르겠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디비노 부인이 포모도로씨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동안 즐라는 뱀을 찾아 돌아

다녔다. 디비노 부인은 포모도로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온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왜요?" 부인이 물었다. "왜요? 왜요?"

"새 출발을 위해서요!" 포모도로씨가 행복한 듯 고무 볼을 부풀리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말했다. "지쳤거든요."

"무엇 때문에 지쳤는데요?" 호기심 많은 디비노 부인이 물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쇼핑센터와 상품과 세일품, 난폭한 운전자들과 휴대전화와 귀가 찢어질 듯한 음악소리와 큰 차들과 패스트푸드에 질렸어요. 있잖아요. 동물모양을 한 마시멜로 사탕 같은 거?"

"아니요,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맘에 들지 않았어요."

"아, 또 다른 것은요?" 디비노 부인이 말했다.

힘겨운 땀을 찾으러 다니는 졸라는 발에서 올라와 온 몸을 거쳐 입으로 나온 공기 소리로 포모도로씨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다.

"푸푸."

디비노 부인은 푸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몸을 돌렸다가 다시 돌아서서 "무례한 일들에 질렸어요."라고 말하는 포모도로씨를 빤히 쳐다봤다.

그 말은 점잔 빼는 것처럼 들렸고, 나는 숲속에서 졸라가 내뿜는 또 다른 푸푸 소리를 들었다.

"있잖아요." 포모도로씨가 계속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무례한 행동들, 트림소리, 거친 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머!" 디비노 부인이 말했다. "바보! 천치들!"

## 나의 탑



나의 까사로사 탑은 스위스에서 최고의 볼매나 최고의 완소는 아닐 것이다. 결국에는 스위스 남부에 있는 티치노 지방의 다른 석탑들과 같은 탑일 뿐이다. 나의

까사는 분홍색이지만, 이 건물은 삼 층이고, 돌색이다. 어떤 표현이 좋을 까? 갈색? 겨울의 짙단색깔? 우유를 많이 넣은 커피색이라고나 할까?

이 탑은 거의 400년 동안 훌륭한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높이 곳곳이 서있다. 탑 꼭대기는 낮은 담으로 둘러진 개방형 발코니가 있고, 천정 위 지붕은 기와로 덮여있다. 창문은 없다. 손만 뻗으면, 바로 거기에 공기가 있다. 다른 집들보다 높이, 높이 솟아 있고, 그 비슷한 높이에 있는 것이라고는 몇 그루 나무와 길 아래에 완고하게 솟은 교회의 첨탑뿐이었다. 발코니에 있는 유일한 것들이라고는 얇은 해먹과 전등, 그리고 내가 잠깐 쉴 수 있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공간 뿐이었다.

발코니 아래에는 정사각형의 작은 방이 있고, 발코니의 정확한 크기는 이 방과 같다. 이 방에는 발코니로 올라갈 수 있는 문과 방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출입문 두개가 있다. 또한 이 방에는 낮은 깃털이불이 덮힌 좁은 침대와 초가 놓인 작은 책상이 있다.

간이침대가 있는 방 아래에는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정확하게 그 방의 크기는 바로 위에 있는 방과 그 위 발코니의 크기와 같다. 아래 방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죽은 거미와 파리들만이 있다. 천장에는 윗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달려 있고, 웅크려야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은 좁디좁은 층계참으로 이어지고 나선형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아래 집 본체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탑이 특별한 게 없지만, 나에게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탑 중에 가장 멋지다. 발코니에 서서, 사방을 둥글게 에워싸는 듯한 산을 볼 수 있고, 그 산꼭대기는 하얀 눈으로 덮여 일년 내내 하얗다. 산 아래에는 청록 빛 호수가 있고, 밤에는 이 산들 위로 희고 푸른빛을 띠는 별들로 콕콕 찢러 넣은 짙은 남빛 하늘이 있다. 내 탑에서 나는 이 마을의 모든 까사를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생물체를 모두 볼 수 있다.

400년간 딱 한번 누군가 이 좁은 침대가 있는 발코니 아래 방에서 살았었다. 어떤 하녀가 거기에 살았다. 하녀는 나를 불렀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갈 때까지 탑에서 지내면서 보살폈다. 나는 밖에서 무화과를 모으러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휘이잉 소리를 들었고, 황금빛 광선을 보았다. 그 이후

로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이 방을 쓴 적이 없다. 때때로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황소처럼 울부짖을 때, 나는 출입문을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서 침대 위의 솜털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다. 천사는 침대가 필요 없지만 가끔 침대는 천사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 졸라



까사에서의 첫날 밤, 졸라는 좁은 통로를 기어서, 탑을 향해 난 지그재그 계단을 밟고, 발코니로 향한 출입문으로 기어갔다. 나는 나른해지면서, 창틀에 얹드려, 무화과를 깨서 먹는다. 내 밑에는 호수로 미끄러지는 푸른 언덕과 위로는 짙고 푸른 호수에 빛을 쏘는 새하얀 풍선 달이 떠있다.

졸라는 두렵지 않아 보였다. 그 애 역시 날 볼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지만, 바로 “차오.(안녕)”라고 인사하며, 창가에 기대고는, 깨물은 무화과즙이 돌 위로 떨어지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다. “천사?” 졸라가 말했다.

바로 그거다. 졸라는 바로 알아차렸다. 사람들은 거의 모른다. 가끔 어린 아이들은 무언가를 보거나 느낄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한 말은 하지 않는다. 대체로 이런 아이들은 마치 빛이 너무 밝다는 듯이 눈을 깜빡이거나 찡그린다.

한 아이가 정확히 나를 가리키며 말한 적이 있다. “피쁠! 피쁠!”

아이 엄마는 마치 아이가 하루 종일 엉뚱한 말만 한 것처럼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남자 아이는 거의 감길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피쁠!”

“뭐라는 거니?” 아이 엄마가 물었다. “피클? 피클 먹고 싶어?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해.” 엄마는 아이를 잡아당기고, 아이는 나를 보기 위해 고개를 두리번 거렸다. “피쁠? 피쁠?”

"집에 가면 좋게!" 아이 엄마는 짜증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탑에는 즐라라는 여자애가 있고, 나를 본 것에 그리 놀라워하지 않는다. "천사?"

"난 여기 살아," 내가 말했다.

"흐음. 그럼 넌 여기에 머물 생각이구나?"

기가 막혀!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자기들이 불쑥 들어 와 놓고선 천사를 쫓아낸다고?

"그래, 나 여기 살아."

"음. 그럼, 니가 계속 여기서 지낼 거라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즐라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어떠한 것도 나는 할 필요가 없었다.

"넌 분명 영리한 천사야." 그 애가 말했다. "굉장히 똑똑해. 니가 조금 어리긴 해. 하지만 내 또래인가. . . ."

사람들은 자기가 모두 안다고 생각한다! 내 나이는 몇 백 살 일지도 몰라!

즐라는 내가 던진 것만큼 벽을 향해 무화과를 던졌다. "우리 탑의 천사는 우리 탑의 뱀보다 나은 것이 분명해."

우리 탑이라고? 사람들이란!

즐라는 스미즈, 스머글즈, 단어가 뭐였지? 그 행복한 이빨을 한 단어가 뭐였더라?? 스물? 스메일? 스마일? 스마일! 그 애는 하얀 치아를 보이며, 솔직하고 크게 미소를 지었다. 달빛 안에서, 즐라의 곤두선 머리가 은색과 푸른색으로 빛났다.

즐라는 "우린 한 팀이 될 거 같아. 진심으로 가슴깊이 영광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했다.

영광이라고? 진심으로? 가슴깊이? 흥, 꼬집는 게 낫겠다.

즐라가 몸을 돌리고, 지그재그 계단을 내려가며, 덧붙였다. "니가 내킬 때 돌아다니자." 그 애는 무화과가 묻은 손을 흔들며 "그리고 익숙해질 거야.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니깐. 언제든지 니가 좋다면 끼어도 돼!" 내려가면서 이 말을 하고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참! 쏘다니다니? 난 돌아다니지 않아! 마음 내킬 때? 물론 개가 말을



꺼내건 말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끼어들라고? 물론 내가 원한다면 끼어들어야지. . .

## 천사란 무엇일까?



천사는 행복해야만 하는 것 같다, 아니라고? 천사들은 사랑을 가져다주고, 호의를 베풀고, 보호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며 날아다니는 존재다. 아니라고? 어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나, 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없다. 그리고 사랑과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장소와 넘치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도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지 못했다.

나는 염소를 보려고 산으로 뺨하고 움직일 때에만 붕 뜨는 기분이 든다. 염소는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 풀을 씹고, 떨어지는 저음으로 종종 메에, 메에, 메에 운다.

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천사가 되는 훈련 과정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다. 나는 아마도 사람들이 죽을 때 위에서 내려와, 하늘로 이들을 안내하는 다른 종류의 천사였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종류의 천사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한다. 내가 이동하는 천사일 수도 있지만, 실수로 떨어진 땅의 천사일 수도 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나는 하늘이 어디인지, 천사 훈련 센터가 어디인지, 다른 천사들이 어디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다, 나는 찾아는 보았다.

아마도 죽어가는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기다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와 죽은 사람을 따라 하늘로 가는 걸 따라 갈수 있다. 혹시 이동하는 천사들이 잘못해서 실제로 죽지 않은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간접이 있는지 궁금하다.

## 졸라의 패션



나는 졸라가 여기 산속 마을에 사는 다른 어린아이들과는 비슷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 아이는 옷 위에다가 다른 옷들을 많이 겹쳐 입는다. 예를 들면, 드레스를 세 개 입는 다든지, 옷들 위에 다른 옷을 걸친다든지, 아니면 가끔은 자기 허리, 목, 머리에다가 스카프들을 겹겹이 걸치고 치마를 두 장이나 입었으면서도 세 번째 치마를 입는다. 더구나 밝은 춤지도 않은데, 정말로 여름인데 말이지.

색깔들은 모두 밝은 색이다. 어떤 색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라즈베리색, 에메랄드색, 터키색, 페리윙클색(맞는 색깔이겠지?), 해나 새 같이 노란색, 살구나 굴 같은 주황색, 멜론색에 가깝다. 그리고 졸라는 또 손목, 발목, 목, 머리에 여러 빛깔의 리본을 단다. 내 생각엔 아마도 그 아이는 옷을 넣어 둘 장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집에는 공간이 넉넉하다. 아마 졸라는 옷을 도저히 고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만족 할 때까지 옷을 그냥 막 꺼입는 거 같다.

팔을 휘젓고 허공에다 노래를 하며 행군하고 있는 이 공작 같은 여자를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

오늘, 졸라는 몬테놀라로 가기 위해 천천히 언덕을 돌아내려가는 길에서 몬도포코 부인과 마주쳤다.

졸라는 부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멈췄다. “차오!”

몬도포코 부인은 졸라의 스타일과 색상을 한번 쓱 보더니 자신의 발을 힐끗 보았다. 그리 춤지 않은 날씨인데도 몬도포코 부인은 갈색 털이 빠져나오듯이 둘러진 짧은 부츠를 신고 있었다. 부인은 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음메, 음메, 음메. 진짜네!”

“이 털이요, 이거 양털이에요? 새끼 양털?” 졸라는 자신의 손을 지그시 가슴 위에 얹었다. “정말 멋지다.” 마치 몬도포코 부인이 그 털이 진짜라는 대답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상당히 진지하게 말했다.

그 다음에, 졸라는 탐으로 올라가,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터레니아, 비디니아, 내 이름은 유지니아야."

"졸라가 아니고?" 내가 말했다.

"오늘 나는 유지니아야." 졸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긴 끈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신의 팔과 다리를 천천히 흐물흐물하게 움직였다. "터레니아, 비디니아, 내 이름은 유지니아야. 로우 로우 로웨나 봤어?"

"아니, 못봤어."

"그럼, 살-리는" 졸라가 말했다. 사다리 구멍으로 다시 들어갔다.

"살-라," 내가 말했다.

## 디비노가(家) 사람들



해가 산 뒤로 솟아오르기 바로 전, 탐의 아침, 나는 디비노 부인이 우리 집 마당과 지금은 미국인 포모도로씨의 정원이기도 한 까사로사 정원으로 실내복을 입고, 진흙투성이의 정원 부츠를 신고, 크고 까만 뱀을 끌고 가는 것을 봤다. 부인은 뱀을 장작더미에 아무렇게나 넣고, 말했다, "차오, 차오. 아반띠!(전진)"

쌀쌀한 아침에는 뱀들의 움직임이 빠르지 않지만, 디비노 부인의 속도에 맞추면서, 부인의 뒤를 따라 마당으로 간다. 부인이 돌아서자 뱀을 발견했다. "이런!" 부인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너무 추했다. 부인은 뱀을 집어 들고, 까사로사 마당으로 끌고 가서 말했다. "아반띠, 아반띠!" 부인은 기업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뱀에 침을 뱉었다.

나는 탐에서 솔방울을 떨어뜨렸고, 그것이 부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 솔방울이 부인의 머리에 상처를 내지는 않았지만, 부인을 화나게 만들었다. 부인은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더 험한 말을 했다.

오전 늦게 디비노 부인 집 마당에서 우리 집 마당으로 바나나 껍질이 날아왔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쓰레기를 마구 던져서는 안 된다.

다음엔 썩은 사과가 날아왔다. 퍽! 물컹한 무화과도. 퍽! 연어 두 조각이 날아왔다. 슈. 슈.

나는 졸라가 집에서 나와, 숲속을 향해 소리 지를 때, 바로 솔방울을 던질 준비가 되었다. "그만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멈춰!"

또 다른 무화과 하나. 퍽.

졸라는 수소로 돌변해서 숲을 망쳐 버렸고,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재빨리 날아야 했고, 그러고 나서야 부인이 비니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들어봐, 이 하찮은 두꺼비야, 니네 집 쓰레기는 니네 정원에 두어. 알겠냐?"

그 하찮은 두꺼비는 부인에게서 물러나며 말을 했다. "논 까삐스코!(non capisco:뭐라고 하는 거야) 쳇!" 비니는 졸라가 한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것이 졸라를 무척 화나게 했다. "이 까프로!(염소) 포르코(돼지) 갈로!(수탉)" 졸라가 말했다.

졸라는 두꺼비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았다. 대신에, 그 애는 비니를 염소, 돼지, 수탉라고 불렀다.

"포모도로는 토마토지롱!" 비니가 말했다. 그리고서는 할머니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문을 쾅하고 닫는다.

졸라 포모도로는 문을 노려본다. "미친놈!"

## 머리카락과 발바닥



믿을 수 없겠지만, 사람들은 머리를 감으려고 혹은 발톱에 색을 칠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낸다. 정말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흙 속으로 기어 들어가 쥐꼬리만 한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도 있다. 내가 결벽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는 꺼내기도 싫다.

나는 밤이 되자, 머리카락과 발이 깔끔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획하고 들어가

흙 속을 기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지만, 아침이 밝아오고, 깔끔한 사람들이 잠에서 깨고 나면 이미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내 실수 일지도 모르고, 더러운 곳을 기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내 실수 일지도 모른다. 나는 정말 어리석다. 도대체 다른 천사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 긴급한 문제



나는 내 탑 발코니에 기대어 디비노 부인이 마당에서 살핀 오렌지 민달팽이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부인은 검은색 튼튼한 신발을 신고, 수수한 검은색 옷을 입고, 그 옷 위에 분홍색 잠옷 가운을 걸쳤다. 이 장면은 충격이었다. 디비노 부인이 항상 검정색만 입는 이유는 한 때 결혼했던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지금은 과부이다. 그러나 부인은 지금 분홍색 가운을 걸치고 있다. 디비노 부인은 분홍색을 입지 않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출할 때, 잠옷 가운을 걸치고 나가지 않는다.

내가 분홍색 가운에 대해 궁금해 하는 동안 졸라는 탑을 향한 나선형 계단을 건너서 ‘안녕’ 혹은 ‘차오’ 라는 이례적인 인사도 건네지 않고 말했다. “천사! 헛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해!”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말이 싫다. 이 말이 오히려 나를 더욱 하기 싫게 만든다. 오늘은 못 들은 척 할 것이다.

"천사! 왜 너는 헛간에 있는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한거야?"

나는 지붕아래 거미줄을 살피는 척했다. 졸라는 주황색과 노란색과 청록색의 세장의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입고, 솔을 걸치고, 발목에는 보라색 리본을 두르고 머리에는 녹색 깃털을 꽂았다. 나는 디비노 부인이 모은 민달팽이를 분홍색 가운 안에 넣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 분홍색 가운 안에 넣은 민달팽이가 티가 나지 않는 게 더 신기하다.

"천사!"

장담하는데, 졸라는 앞으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다.

"어떤 헛간?" 내가 말했다. "어떤 아이들?"

"몬테놀라로 가는 길에 있잖아, 그 오래된 헛간 말이야." 졸라가 말했다.

"오래된 헛간이라니?" 여기 있는 건물들이 모두 오래됐지만, 이 마을에 남은 헛간은 하나도 없다.

"분홍색 집 맞은편 언덕을 오르는 길가에 있잖아. 오른쪽에 있어. 저 위에 봐. 저 위에." 졸라의 팔은 언덕길과 언덕을 가리켰다.

"아, 헛간인지, 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진 곳 말이야? 예전에 닭인가 뭐가 키운데?" 내가 말했다.

졸라는 뿌듯했지만, 기뻐하진 않았다. "니가 뭐라고 불렀는지,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헛간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애들이야."

"어떤 아이들?"

"천사야! 너는 다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 말은 나에게 약간 충격이었다. 아니, 큰 충격이었다. 내가 많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졸라는 나와 있는 게 마냥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 애가 말했다. "그 곳에 아이들이 살고 있어. 어둡고 먼지투성이에 차가운 곳에서 말이야. 떼거지로 있어. 여덟 명 아니면 열 명 정도. 더 많을지도 몰라. 그 아이들은 더러운 곳에서 굶주리고, 뼈쩍 말랐어. 이걸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야."

"왜 그 애들이 거기 사는 거야?"

"천사야!" 졸라는 내가 큰 골칫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자기 머리에 올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 거잖아. 넌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니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이유를 알고 처리를 하라고? 그럼 졸라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는 건데?

왜 그 애는 알고 나는 모르는 건데?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다.

## 곤란한 상황



나는 헛간인지, 우리인지 폴트리니 가족이 닭들을 키웠던 곳을 향해 급히 날아갔다. 아주오래 전에는 쥬키니 가족의 못된 수탉과 닭들이 있었다. 그 전에는, 음, 내가 자꾸 오래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졸라가 말하는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이 그 곳에 있는지, 있다면 아이들이 졸라 말대로 지저분하고, 굶주리고, 비쩍 말랐는지 알고 싶다. 나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이 싫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이 발톱에 색을 칠하려고 돈을 지불할 때 그들이 굶주리는 것도 싫다.

하지만 여기는 스위스이고,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굶주려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굶기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졸라가 말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안 그런가?

봤죠? 이 헛간은 비어있어요. 아이들도 없고요. 졸라가 도착했을 때 내가 말했다. “없잖아.”

"확실해?" 졸라는 울타리로 재빨리 움직였다가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늘어진 철사 울타리를 응시했다.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러 나갔을 거야." 졸라가 말했다.

나는 졸라가 싫어하는 콧방귀를 켜다.

"천사야, 자꾸 나를 실망 시키는구나!"

뭐라고? 그 말 때문에 상처 받았다.

졸리는 엉덩이에 손을 얹고 서서 나에게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천사야! 어두워지면 다시 오자. 너도 알게 될 거야." 졸라는 뛰어 내려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졸라가 서로에게 친절한 학생들을 만들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학교를 만들려는 포모도로씨를 도와주어야 한다.

나는 이런 평화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려는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서로에게 쉽게 화를 낸다. 그리고 쉽게 그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다.

한밤중에 나는 닭을 키우던 곳으로 돌아왔고, 그냥 뱀이나 박쥐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뭔가 찾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덟 명에서 아홉 명 정도의 먼지투성이에 비쩍 마른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다 해진 담요 한 장을 덮어놓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빵 한 덩이를 갉아 먹었다. 한대 여섯 살 정도로 가장 어려보이는 녀석은 보채고 있었다. “엄마.” 아이가 울먹였다. “엄마 보고 싶어.”

"지띠(Zitti:입 닥쳐)!" 큰 아이가 말했다. "누군가 니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감옥으로 끌고 갈거란 말이야."

그 말이 막내를 더 울게 했다. 나는 날아서 아이들에게 온기를 쬐어주었다. 불쌍한 영혼들. 엄마도 없이. 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이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얼마나 여기 있었을까? 나는 이들을 왜 보지 못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비니의 폭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염소들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 잠이든 먼 산 위를 날아다녔다. 나는 오두막을 지나고 목초지를 지나 다리를 지나 개울가 위를 지나 날아다녔다. 나는 닭장과 돼지우리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닭과 돼지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오두막과 까사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썩하고 남쪽으로 날아갔다가, 티치노에 있는 탑으로 돌아왔다. 그 탑은 자욱한 구름 속에 있다. 어떤 날 아침에 보면 희뿌연 물방울로 보이고, 마을 전체를 휘감아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흰 구름으로 보인다. 그래서 산 맞은편이 보이지 않고, 산중턱에 있는 집이나 오솔길이나 호수도 보이지 않는다. 미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커다란 스카프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집을 지나가며 날아다닐 때, 나는 포모도로씨가 험령한 가운을 입고



벽난로 앞에 서서, 어린 소년의 사진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침대에는 포모도로씨의 머리카락으로 어질러져 있고, 어깨는 축 쳐져 있다. 포모도로씨는 어린아이 사진에 진심어린 애정을 담아 사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나는 탑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소년이 궁금했다.

비니가 쇠 양동이를 두드리고, 그의 할머니와 디비노 부인이 문 좀 달으라고 ‘지띠! 지띠! 소리치며, 떠들어대기 전까지는 아주 조용했다. 하지만 비니는 계속해서 쳐댔다. 그러고 나서 졸라는 집을 나와 울타리를 향해 소리친다. "시끄러우니까 그만해, 이 아티초크야!" 그러나 그 아티초크는 멈추지 않았고, 졸라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 그 쇠 양동이를 짝 잡아서 개구리가 사는 연못 속으로 던져 버렸다.

디비노 부인은 또 저 분홍색 가운을 걸치고, 절뚝거리며 나와서는 이태리어로 졸라에게 욕을 많이 하며 말했다. 그러나 졸라도 부인에게 바로 받아쳤다. 심지어 졸라는 부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한 것 같았다.

디비노 부인은 졸라의 머리장머리 없는 말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아버지한테 알려줄테다!" 디비노 부인이 험박했다.

"전 아빠가 없어요." 졸라가 말했다. "저는 필리파 밀리파라는 고아라고요."

나는 천사는 두통이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주 지끈거리는 두통이 하나가 생겼다.

졸라는 탑을 향해 소리쳤다. "이 멍청이들한테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졸라가 허공에다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랐다. 디비노 부인과 부인의 손자 비니는 탑을 힐끗 보더니 서로를 쳐다보고 나서 졸라를 보았다. 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졸라가 비니에게 말했다. "니가 정말 무엇을 두드리고 싶다면, 왜 드럼을 두들기지 않는 거야?"

비니는 말처럼 발을 굴렀고, 목을 거위처럼 쭈욱 뻗었다. "나 드럼 쳐." 그가 말했다. "오래 배웠고. 잘 쳐."

졸라는 작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과장하듯이 움켜쥐었다. "그 부분이 진심으로 의심스러운데." 졸라가 말하고 나서 가 버리자, 그것이 비니를 더 화나게 만

1) Artichoke: 영경귀 꽃같이 생긴 국화과 식물.



고 하는지 안 들리네요. 뭐라구요?"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서서 개처럼 짚어대면 부인은 말한다. "무슨 일이라도 났어?"

졸라와 포모도로씨는 디비노 부인의 비스토가 짚는 멍멍멍 소리가 불쾌하다. 그 개를 죽이고 싶어 한다.

졸라가 침실 발코니에 서서 짚어대는 비스토에게 소리친다. "조용히 해! 입 좀 다물어! 그만 좀 해! 널 죽여 버릴 거야!"

포모도로씨도 침실 발코니에 서서 짚어대는 비스토를 향해 소리친다. "조용히 해! 닥쳐! 그만! 죽여 버릴 거야!"

그리고 이런 소리에도 아랑곳 않는 디비노 부인은 정원에 있는 민달팽이들을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민달팽이를 우리 까사 마당에 있는 뱀들에게 던져주었다.

## 포모도로씨



나는 포모도로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다. 포모도로씨는 키가 굉장히 크고, 얼굴이 주름지고, 고무 같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이다. 포모도로씨는 때때로 테이블이나 현관문에 부딪히거나, 타일이 깔린 바닥에 진흙투성이의 커다란 부츠를 신고 쿵쿵거릴 때에는 아이 같아 보인다. 포모도로씨는 일분을 웃고, 다음에 인상을 쓰고, 코를 찡그리고, 고개를 좌로, 우로 기울였다가, 이빨 가는 소리를 낸다.

어떤 날에는, 책과 신문을 펼쳐 놓고, 테이블 위에서 데생 작업도 하고, 뽀족하게 깎은 연필로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어른이다.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저어," 포모도로씨는 중얼거린다. 그는 자신의 덤퓨터를 가볍게 두드린다. 툭툭, 툭툭, 툭툭, 멈추었다가 고개를 들어 천창을 보고 깊이 생각하다가, 툭툭 두드리며 다시 생각한다.

포모도로씨는 졸라가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딸을 신경 쓰지 않는다. 졸라도 이

런 일이 익숙한 듯 했다. 분명히 졸라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포모도로씨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졸라도 자유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졸라가 슬피한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어쩔든 불행해 보이지 않아서 일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포모도로씨가 독서를 마치고 댄퓨터를 끄려고 툭툭 가볍게 두드리고 나서, 일어선 다음, 계단으로 내려간다. 포모도로씨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 내려가다 방마다 멈춰 서서 잠깐 동안 그 안을 둘러본다.

졸라의 방 문 앞에서, 포모도로씨는 바닥에 누워서 양팔을 대자로 뻗고, 침대 위에 발을 올려, 독서 중인 딸과 그 옆에 쌓여 있는 소설책을 본다. 그 책 표지에는 야자나무 한 그루와 모래위에 발자국이 찍힌 섬이 있다.

포모도로씨는 고무 같은 입을 늘이면서, 손가락 관절 소리를 내며, 말한다. “자, 그럼,” 그리고는 현관으로 내려간다. 졸라와 포모도로씨는 서로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다. 포모도로씨는 독특한 성격의 딸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며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하는 딸에게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모도로씨는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책상 옆에 쌓여있는 많은 상자들 중 하나를 연다.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어보고, 미소를 짓더니, 벽난로로 들고 가서, 한 소년의 사진 옆에 둔다.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포모도로씨는 손가락으로 여자의 사진을 지그시 누르면서, 소년의 사진도 똑같이 지그시 누른다.

포모도로씨가 책상으로 몸을 돌리고 깊숙한 서랍 하나를 열어 보려고 할 때, 나는 발코니로 다시 훑하고 날아갔다. 나는 이마를 쳤다! 내가 서랍 안에서 본 것은 졸라가 말해줬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들었다. 언제였냐고? 기억나지는 않는다. 헛간 문제가 생기기 전이다.

나와 졸라, 우리는 탑으로 올라가서, 무화과를 으꼐다. 우리는 포모도로씨가 뒷마당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졸라가 말했다. "천사야, 천사야, 한 소년에 대해서 말해줄게. 들어볼래?"

솔직히 나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할 것도 없어서 말했다. "들어나보자."

졸라는 손가락에 묻은 무화과즙을 핏었다. "어린 소년이 아홉 명의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살았어. 언덕 밑에 있는 그 집에 모두가 살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지.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음식이 넉넉지 않았어.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초콜릿 쿠키가 담긴 상자를 집에 가지고 오신거야. 초코 쿠키 먹어봤나, 천사야?"

"나? 아니, 아니, 난 쿠키 같은 거 안 먹어."

"아, 그런데 그 아이들은 쿠키를 최고로 맛있어 해!" 졸라가 말했다. "그래서 그 남자애 아빠가 초콜릿 쿠키가 들어있는 박스를 집으로 가지고 오시잖아, 그러면 자랑스럽게 쿠키를 꺼내어 놓고, 위층으로 가서 손을 씻어."

"오, 이런." 내가 말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다.

졸라는 바람이라도 막아서고 있는 것 마냥 극적으로 손을 치켜들었다. "소년은 지금 이 상자 안에 쿠키를 건드려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 아빠가 나중에 상자를 열어보고,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씩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오, 천사야, 소년이 얼마나 쿠키를 기다려왔는데. 그 아이는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는 게 참 힘들었어. 아빠가 이 상자조차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면 하고 빌었어. 쿠키를 먹지 않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도 힘들고, 모두가 딱 하나씩만 먹어야 한다는 게 괴로웠어."

지금 여기서, 졸라는 슬픈 상황에 더 이입하려고, 한숨을 쉬고, 땀을 들였다. "오, 천사야, 그 어린 소년이 상자 안에 쿠키를 쥐어 들고, 지하실로 도망가서 쿠키를 전부 먹어 버렸어. 스스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너무나 행복했고, 아주 맛있었어. 그, 그, 초콜릿도 말이지."

"그럴 줄 알았어, 졸라야. 그 아이는 쿠키 하나가 아니라 다 먹고 싶었던 거야."

"맞아, 천사야, 그래. 그 후에, 그 아이는 실토를 했어. 물론, 정직했지만, 매를 맞았어."

"나는 그게 두려웠어, 졸라야."

"그래, 그럼.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 소년은 지금 어른이 되었

어. 그의 집에는 책상이 있고, 그 책상에는 깊숙한 서랍이 하나가 있어, 그 서랍 안에는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어. 초콜릿 바, 초콜릿 캔디, 초콜릿 쿠키들 말이야! 초콜릿이 아주 많이 있다구!"

"난 이해해, 졸라야."

"천사야, 성인이 된 소년은 밤이건 낮이건 초콜릿을 골라 먹을 수 있었지만, 돼지가 되고 싶지 않았을 거야. 다 먹어치우지 않고, 왜 초콜릿을 서랍 깊숙이 두었을까?"

"아, 졸라야, 아, 나 이거 본적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는 벽장이나 상자엔 가끔 비밀의 서랍장이 있어. 그 곳에 작은 것을 보관해두지. 동전이나 아기자기한 수 집품을 말하는 게 아니야. 루비니씨처럼 음식이나 특이한 것을 몰래 넣어두는 것을 말하는 거야. 루비니씨라고 알고 있지? 언덕 위에서 온 정사각형 같은 분?"

졸라는 손가락으로 씻하고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댔다. "한 손에는 양털 모자를 들고, 다른 손에 지팡이를 들고 빨간 의자에 앉아 있는 아저씨 말이지?"

"그래, 맞아, 그 분이 루비니씨야. 그 분에게도 비밀의 서랍장이 있단다. 서랍엔 수십 켤레도 넘는 짙은 감색 양말이 있어. 이건 사실이야. 너무 많아서 신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양말을 필요로 해. 왜냐하면 루비니씨가 어렸을 적에 항상 추위를 탔대. 특히 발 말이야. 그래서 지금 슬며시 양말을 담아두는 비밀의 장소가 있대. 뭐라고 말하지? 그, 저, 뭐냐, 아마도 보험이라고나 할까?"

"아, 아하! 보험!" 졸라가 말했다.

나는 포모도로씨가 자신의 책상 깊숙이 있는 서랍을 여는 모습을 볼 때까지 졸라의 초콜릿 서랍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초콜릿! 상자 속에는 초콜릿을 바른 체리와 초콜릿으로 덮인 아몬드와 초콜릿 바와 초콜릿 더미들이 있었다. 포모도로씨는 서랍을 열고, 안을 보다가 초콜릿 체리를 먹었다. 천천히 녹여 먹었다.

난 이미 졸라의 첫 번째 책상 서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다. 졸라는 거친 돌, 부드러운 돌, 큰 돌, 작은 돌을 모은다. 이따금씩, 졸라는 서랍을 열고, 돌을 골라서 손바닥 위에 올려서 돌려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다가 다시 서랍 속으로 집어넣는다. 마치 산의 일부분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도 보험인

가?

졸라에게는 또 다른 비밀장의 서랍이 있다. 파란 실크 천 조각에 붙은 호리호리한 회색과 흰색 깃털이다. 이 모든 깃털이 궁금하다. 이 깃털들은 어떤 보험을 제공하는 것일까?

## 내 영역



정확하게 내 영역이란 무엇일까? 나는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아마도 마을 전체이거나, 마을의 일부이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거나,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이지? 누가 나에게 말해 줄까? 나는 심지어 북쪽으로 날아가서 염소들을 볼 때에도 다른 천사를 본적이 없다. 천사들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졸라는 천사가 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아이는 항상 내가 이것저것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오늘 졸라가 말했다. "그럼, 칼 없다고?"

"칼이 뭔데?"

졸라는 자기 이마를 철썩 때렸다. "너는 아주 어린 천사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미치게 한다. 나는 백 살이고, 그 아이는 불과 몇 살밖에 안 된 작고 연약한 사람이다. 아마 열 살. 열두 살. 여덟 살 일수도. 참나!

졸라가 말했다, "있잖아, 천사도 싸웠었어. 항상 상냥하고, 다정하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

졸라는 내가 '상냥하고, 다정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서 졸라는 나에게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천사들은 날아다니는 말을 타고 검을 휘두르며, 번개를 내리친다. 그들은 전사처럼 강했고, 길고 긴 큰 전쟁에서 악의 무리들을 무찔렀다.

"그 중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천사도 있었어." 졸라가 말했다. "너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어떤 거?"

"날아다니는 말을 타고, 검을 휘두르며 번개를 내리치는 것 말이야."

그 애는 진지하게 말했다. 졸라는 내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나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애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대답하기 전에, 졸라가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는 거야?"

"뭐? 뭐라고? 아니! 난 사람이 죽어서 된 것이 아니야. 난 천사야!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란 말이야!"

"그래, 알았어. 진정하라구." 졸라가 말했다. 그 아이는 손가락으로 돌이 튀어나온 부분을 만졌고, 돌에 있는 잎맥을 만졌다. 내가 진정되자, 졸라가 물었다. "너는 남자 천사야 아니면 여자 천사야?"

"뭐라구?" 나는 졸라가 나를 왜 가만히 내버려두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는 것도 어색하고, 특히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도 낯설다. 일반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해있거나 아주 아픈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에게 호의적이다. 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졸라는 나의 표정을 살피고 있다. "알아맞히기 힘들지만, 니가 머리 긴 남자일 수도 있고, 힘이 센 여자일 수도 있어."

"나는 천사야, 나는 니가 천사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해.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나는 그냥 천사야. 천사. 천사!" 내가 말했다.

"아," 졸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곧추선 머리가 들썩였다. "단지 교회에서 일뿐이야, 있잖아, 어떤 때에는 천사들은 긴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고, 어떤 때에는 아기들이잖아. 또..."

"오, 교회들. 나는 니가 말한 천사들에 대해 몰라. 나를 혼란스럽게만 할 뿐이야." 어떤 천사는 여자이고, 또 어떤 천사는 아기라는 졸라의 말이 맞았다. 나는 돌이나 그림에서만 천사를 봤었지, 실제로는 본적이 없기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어떤 천사는 이렇게 보일까? 나도 이렇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졸라에



게 물었다.

"니가 어떻게 생겼냐고? 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야?" 졸라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겠니? 거울에 비친 나는 희뿌연 안개야. 니가 보기에도 희뿌연 안개 같니?" 내가 말했다.

"아니, 아니야." 졸라가 말했다. 동공이 크고 까만 눈으로 나를 찬찬히 살피었다. "기분 나빠하면 안돼, 너는 사람같이 생겼어."

"헉! 사람은 안돼."

"음, 잠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아니야. 너는 사람 같은 모습에 호감 가는 얼굴이야."

"호감이라고? 볼매야?"

"응. 호감형이라고 말해야겠네. 그 가운, 흠, 약간 길고, 구부정해."

나는 팔을 뻗어 보였다. "그런가?"

"응, 근데 제왕 같기도 해. '제왕'이 뭔지 알지?"

"당연하지, 왕, 여왕 같은 거!"

졸라는 나의 뒤를 눈여겨보려고 노력했다. "날개는 어디로 갔어?"

"날개? 무슨 날개?"

졸라가 찌푸렸다. "날개 없어? 너를 처음 봤을 때, 틀림없이, 날개가 있다고 확신 했었는데."

나는 내 성벽을 부수고, 수천 개 조각으로 부서져 버릴 것 같았다. "난 날개가 없어." 나는 차분하게 말을 해서 그렇게 기분 나쁜 말투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기분은 상해있었다. "나는 새가 아니야. 천사란 말이야."

"그래. 알았어. 진정해." 졸라가 말했다.

붐, 붐, 붐-디-붐-, 붐, 붐, 붐-디-붐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정말로 차분해졌다고 졸라를 안심시켰다. 비니가 드럼 치는 소리였다. 이어서 멍멍, 멍멍, 멍멍, 멍멍, 멍멍, 멍멍 소리가 들려왔다.

붐, 붐, 붐-디-붐...

멍멍, 멍멍, 멍멍...

졸라는 발코니에 기댔다. "조용히 해! 입 좀 다물어! 그만 좀 하라구! 죽여 버

릴거야!"

만약 졸라에게 벼락이 있었다면, 일 비스토에게 던져 버렸을 것이다.

## 한밤중에 휘휘



그날 밤, 나는 닭장 속에 아이들을 확인하고, 따스한 빛줄기로 아이들을 비추어, 아이들이 먹으라고 내가 남기고 간 무화과를 찾았는지 보았다. 나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까사와 아파트를 휘휘 날아다녔고, 굶주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잠에 빠진 어른들 모두에게 뿌려댔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 행복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말걸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 말이다. 그렇죠?

꼭 아침에 붉게 물든 이마 모양의 태양이 산 위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할 무렵, 나는 발코니에 있는 해먹으로 돌아왔다. 산들의 소리와 나무의 허밍만이 들리고, 고요했다, 아주 평화롭게.

## 포케타



포케타-포케타-포케타, 포케타-포케타-포케타, 포케타-포케타-포케타, 포케타-포케타-포케타- 뭐지? 이 괴상한 포케타-포케타-포케타 소리는 뭐야?

포케타-포케타-포케타, 포케타-포케타-포케타-

사람들이 마치 운동이라도 하는 소리 같은데, 탁구 치는 소리인가? 마치 탁구 칠 때 공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같다. 포케타-포케타-포케타.

나는 여기저기 훅훅 움직였다. 이 소리 좀 멈춰줘! 여기는 조용한 마을이란 말  
이야!

포케타-포케타-포케타-

이제는 일 비스토까지 거들고 있다 : 멍멍, 멍멍, 멍멍, 멍멍, 멍멍, 멍멍, 멍멍,  
멍멍-

포케타-포케타-

한 일꾼이 내는 소리였다. 그 사람은 바로 길 아래에 있는 오래된 피타 건물에  
있고, 포모도로씨 학교의 담벼락을 만들고 있었다. 일꾼은 새로운 공구로 보이는  
전자동 망치를 쓰고 있었다. 이런 소리를 냈다. 포케타-포케타-포케타, 포케타-  
포케타-포케타-

디비노 부인은 창밖으로 소리 질렀다. 부인은 포케타맨에게 조용하라고 소리치  
더니 많은 욕설을 퍼부었다. 그 다음, 루비니씨가, 그 다음에는 폼페이씨가 소리  
쳤다. 이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부스스한 머리를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멈추  
지 않는 포케타 맨에게 욕을 해댔지만, 그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소리가 포케타-포케타-포케타, 포케타-포케타-포케타에 묻혀서 일꾼은 알  
아들을 수 없었다.

## 걱정의 도가니



마을 안에서는 갖가지 소음으로 쉴 수도 없다. 이전에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  
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그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교회 종소리뿐이었다.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약간 예민해진다. 나는 어떡해서든지 잠을 자 보려  
고 여기저기로 몸을 던져 보지만, 그러다가 포기하고, 저 건너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본다. 내 호기심거리들이 주로 이 마을에서 일어난다. 모든 집 마당과 창문  
을 다 볼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큰 길과 작은 길을 오가는 걸 볼 수 있고, 쥐  
를 쫓는 고양이와 고양이를 쫓는 개를 볼 수 있으며, 새들이 옥신각신 다투면서

둥지를 짓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 눈에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 테라스에서 페인트칠 복장을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는 졸라의 아빠인 포모도로씨를 보았다. 강인한 인상의 포모도로씨는 길고 비쩍 마른 몸에 머리는 검고 숱이 많다. 말을 할 때는 팔을 자주 움직인다. 그 페인트공은 조각상처럼 꼼짝도 않고 서 있다. 그가 살아있긴 한 건지 손으로 쿡쿡 찌러보고 싶게 만든다.

오른쪽 저편에는, 양털 부츠를 신은 몬데포코 부인이 보인다. 부인은 정신없이 수다 떨고 있는 두 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은 디비노 부인이 검정 드레스 위에 핑크 가운을 걸치고 나와서, 까사로사 밖 덩불 위로 구정물을 버리고, 두 노인과 부인들이 있는 뒷문으로 간다. 디비노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발을 동동 굴렀다.

무엇인가 밑에서 튀어 올랐나! 아니면 위에서 떨어진 건가!

나는 지난 밤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배고픈 아이들의 존재를 흠뻑리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오호! 잘한 일이야. 이제부터 사람들은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할 것이다.

머지않아, 오솔길과 산책로는 사람들 발걸음 소리로 북적일 것이고,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팔을 흔들며, 발을 쿵쿵 거릴 것이다. 사람들은 미쳤으니까! 뭐, 괜찮아. 이 사람들은 닭장 속에 홀로 남아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본다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스프링클링 임무에만 뿌듯해하고 있을 때, 졸라가 좁은 다락방 문으로 기어들어와, 발코니로 가서 말을 했다. "천사야! 어떻게 좀 해봐!"

## 성난 사람들



졸라는, 흰색 상의에 노란색 블라우스를 두 장을 겹쳐 입고, 파란색과 녹색과 빨

간색 화려한 색상의 스커트로 겹쳐 입고, 보라색 레깅스를 신었다. 머리엔 검정 머리핀을 꽂고, 팔엔 검정 리본을 감았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내 말 듣고 있니? 니가 뭐라도 좀 해보란 말이야!" 졸라가 말했다.

나는 이미 지난밤에 확확 날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아이들을 알게 되도록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천사야! 사람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나다니? 어째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화가 났다면, 좋은 일이고, 사람들이 이 일에 정신이 팔렸다면, 이들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도둑질 때문이야, 지금은..."

"도둑질이라고?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의 음식들이 사라졌어. 그 중 몇몇은 이불들과 옷가지도 잃어버렸대. 그게 절도지 뭐야."

"아이들? 닭장 속 그 아이들 말이야?" 내가 말했다.

졸라는 발코니로 도토리를 차대며, 더욱 흥분했다. "그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친 걸로 생각하고, 경찰을 부른 거야."

"경찰이라고? 경찰이 아이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응. 천사야! 니가 도와줘야해!" 졸라가 말했다.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포케타-포케타-포케타-

멍, 멍멍, 멍멍멍-

졸라는 발코니 끝에서 소리쳤다. "조용히 해!"

포케타-포케타-포케타-

멍, 멍멍, 멍멍멍-

디비노 부인은 정원에서 민달팽이를 모으고 있다. 부인의 손자 비니는 공중으로 개구리를 던지고 있다. 몬도포코 부인은 자신의 양털 부츠 안을 힐끗 보고 있다. "매에, 매에, 매에에, 매에." 부인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천사야!" 졸라가 말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할거라구." 그리고 나서 나는 잠깐 동안 생각했다. 졸라가 시킨 대로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그 애는 인간이고, 난 천사란 말이야!

졸라는 나를 보며 간절히 애원하며, 조르고 졸랐다. "뭐라도 좀 해봐, 천사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빌어? "에휴, 알았어. 뭔가를 해보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사람들이란! 왜 그렇게 지들 맘대로야?

### 부모들은 어디에?



일단 신중해야 한다. 당장 나에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나는 굶주린 아이들을 쫓고 있는 경찰을 생각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아이들의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을 위한 보호소도 있을 텐데, 왜 이 아이들은 혼자인걸까?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동안, 졸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애 엄마는 어디있는거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너무 뻔뻔한 짓 같아 보인다. 아니라고? 졸라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참견하려고 한다. 나는 자잘한 질문조차도 하면 안되는 건가?

포케타-포케타-포케타-

멍, 멍멍, 멍-

"조용히 해, 참 성가시게 찾아대네!"

졸라는 이리저리 뒤적이며, 도토리 한 움큼 주워들고는 발코니 한쪽 구석으로 던졌다. "이 천하에서 가장 귀찮은 개야!" 졸라는 발목에서부터 리본을 하나로 만들어, 목걸이에 느슨하게 감쌌다.

뼉, 뼉, 뼉-디-뼉-

"멍!" 졸라가 말했다. "비니 드럼소리군!"

뼉, 뼉-

멍, 멍멍, 멍-

"조용히 해, 이 아티초크야!" 그리고 졸라는 내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비니 엄마는 어디 있어? 그리고 아빠는? 어쩌다 할머니랑 살게 된 거야?"

"말하자면 복잡해. 내가 나중에 얘기 해줄게. 지금은 아이들에게 가야하니까." 내가 말했다. 나는 발코니에서 내려왔지만, 무모함으로 무장하고 참견을 했다. "졸라야!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리고 동생은 있어? 그리고 너는 왜 아빠하고 살아?"

졸라는 후추열매를 빨고 있는 것처럼 입술을 오므렸다. "엄마, 동생, 아빠?" 이번엔 억양을 바꾸어 말한다 "엄-마, 동-생, 아-빠. 개나리 보따리 땀싸리 소쿠리 유리 향아리." 눈 깜짝할 사이에 좁은 다락방 문으로 사라졌다.

## 산들의 내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나는 흙더미들을 높이 쌓아놓은 것이 산이라고 생각했었다. 산이 거의 흙으로 덮인 바위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어느 날 졸라에게 이 말을 하자, 졸라는 "당연히 바위로 만든 게 산이지."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한심하다는 듯이 쏘아 보았다.

천사는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이 산골 마을의 집과 교회와 오솔길과 계단과 벽과 탐들이 산에 있던 바위로 만들어서, 산속에는 산의 외관이 있다. 그리고 바위와 돌로 만들어진 집들은 산속에 사는 어린아이들처럼 주변 가까이에 흩어져 있다, 바로 옆에. 이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집과 오솔길, 교회와 탐을 만들 때 쓴 바위가 원래 있었던 곳인 산의 깊숙한 곳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 산속에 침입자들이 오지 못하게 다리들을 날려버릴 시한폭탄이 있고, 또한 침입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눈 깜짝할 사이에 비행기를 이륙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산속에는 음식과 총과 탄약과 물과 이불과 의료장비들이 있다. 어떤 산들 속에는 산 전체가 마을처럼 보이

는 곳도 있다. 농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외부인들이 산속에 침입하면, 어디로 피해야 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이 가끔 놀랍기도 하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침입자들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가끔 슬프기도 하다. 사람들은 왜 침략하려는 걸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침략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더 생각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질 것 같다.

하지만 바위로 만든 집과 탑과 교회가 내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바위는 단단하고, 평생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깨고, 부셔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로 만든 석탑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기분이 든다.

나는 서둘러 굶주린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뺨뺨 움직여야 한다. 이미 경찰들이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여기저기 숨고 있기 때문이다. 재빨리 그 아이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피할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돌이 있는 곳으로. 탑으로. 내가 있는 석탑으로.

## 허락



나는 졸라나 포모도로씨의 허락 따윈 필요 없지만, 최소한 졸라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람들은 참 웃긴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아는 체하며, 참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확천금을 누리는 일이 아니고서야 사람들은 대개 깜짝 놀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졸라에게 아이들이 오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지하실 문으로 들어와 탑 안의 뒤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있는 낮은 방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현관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고, 포모도로씨를 놀래키지 않을 것이다.

"아빠는 안 좋아하실거야. 경찰이나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



다고 말씀하실거야." 졸라는 말했다.

"내 생각엔 아이들을 돌봐줄 책임자가 있다면, 아이들은 닭장 안에서 춥고 굶주리지 않아도 될 거야."

"아니, 내 말은 합법적인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게 말 이야."

"뭐가 문제가 되는데?"

"아이들을 숨겨줬다는 거."

"숨긴 게 아니라 보호한거라구."

졸라는 또 도토리를 발로 찼다. "알았어, 그럼. 알았으니깐, 상황을 지켜보자. 아이들이 조용히 있을지 한번 보자구." 졸라가 말했다. 내 작전이 마음에라도 든 듯 졸라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경찰들이 아이들을 쫓고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잘 숨어서 어두워지면 하나 둘씩 탐 안으로 숨어들어갈 것이다. 졸라는 이불과 베개와 빵과 치즈와 초콜릿을 가져왔다. 졸라는 봉제 동물 인형 세 개와 여분의 양말과 스카프와 자기의 소용돌이 치마와 리본도 가져왔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도 아이들은 믿기지가 않았고, 처음엔 미심쩍어하기 까지 했다. 아이들은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졸라는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려 애썼지만, 아이들은 졸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이런 아이들을 달래려고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무슨 뜻이지?



스위스 남부에 있는 티치노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이태리어를 쓴다. 스위스의 또 다른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모든 언어로 말을 하는데, 순식간에 이 말에서 저 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그새 영어를 써서 당신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말들을 머릿속에 다 담아둘

수 있는 거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 티치노를 방문 하는데, 이들 중 다수는 아주 고집스럽게도 자국어만 사용해서 아주 크게 말한다. 관광객들은 식당 메뉴를 살피다가 웨이터에게 말한다.(영어나 스웨덴어나 일본어로) "무슨 뜻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박또박 천천히 다시 묻는다. "이건 어떤 음식이죠?"

스위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그렇다고 메뉴판으로 손님의 머리를 후려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침을 뱉지는 않는다. 그렇다. 스위스 사람들은 정중하게 미소를 짓고서 손짓 발짓을 써가며 손님이 사용하는 언어로 차분하게 메뉴를 설명한다.

이 상황들은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포모도로씨가 약국에 가게 되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찾으려고 점원에게 ‘푸조 디 나쏘2’ 를 물어본다. 포모도로씨는 ‘코의 약취’ 를 물어왔기 때문에 이태리어 쓰는 점원이 웃다 자빠질 일은 없다. 그렇다. 친절한 점원은 아저씨의 서툰 외국어를 바로 고쳐주기 보다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스프르조 디 나쏘3(푸조가 아닌 스프르조)를 건네 줄 것이다. 그 점원은 포모도로씨가 가고나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서툰 외국어를 쓰는 사람 앞에서 대 놓고 웃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태도가 맘에 든다. 아주 맘에 든다.

굵주린 아이들이 머무는 탑에서는, 모든 언어에 능통한 스위스 사람들 몇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졸라와 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사라진다.

나는 졸라가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졸라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얘기 한다면 공포에 질릴 것이다. 아이들은 내가 유령이라고 생각하거나 졸라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딱 한명의 꼬마가 내 존재를 느끼는 듯 했다. 그 꼬마 아이는 내 옆에 서서 너무 눈이 부신 것처럼 실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발코니 밑에 있는 이 방안은 너무 어두

---

2) puzzo di naso: 코의 약취

3) spruzzo di naso: 비강용 스프레이

워서 작은 창문을 통해 별빛과 달빛만 비칠 뿐이다.

이 아이는 공기를 만지듯이 손을 앞으로 뻗는다. "우와." 꼬마가 속삭였다. 그 아이는 내 가운 위에 서 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내 위에 섰던 적은 많이 있어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헤치려는 것도 아닌데 뭘.

여자아이 세 명과 남자아이 다섯 명이 있다. 우와 꼬마가 다섯 살쯤으로 가장 어려 보인다. 제일 큰 남자 아이가 열 살이나 열한 살로 보인다. 거의 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투성이에다가 새 옷과 낡은 옷이 이상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이즈는 작거나 컸다. 한 여자아이는 몬데폰코 부인의 오래된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가장 어린 아이는 디비노 부인 남편이 생전에 썼던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이들끼리 서로 연관되는 것도 없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모두 버림을 받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고아일지도 모른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모든 얘기를 본인들이 스스럼없이 꺼낸다는 것이다.

차분한 목소리로, 졸라가 한명씩 이름을 물어봤다. 아이들을 양떼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걸 맘에 든다. 졸라는 한명씩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 했다. 남자 아이들은 파울로, 마누엘, 스테판, 프란츠, 조셉이었다. 여자 아이들은 테레사, 로제타, 니콜라였다. 졸라는 이름을 한 번밖에 안 들었지만, 잊어버린 않을 것이다.

이름도 알았고, 이젠 아이들 성격을 파악할 시간이다. 가장 어린 조셉은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조셉은 "우와!" 와 "바스 이스트 다스(*Was ist das*:이게 뭐예요?)?"라고 말한다. 가장 어린 소녀 니콜라는 한 시간에 한번씩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 다정하게요!" 라고 한다. 로제타는 조용하고, 수줍어해서 시선은 항상 바닥을 향해 있고, 손으로 찢어진 옷가지를 꼭 움켜쥐고 이따금 볼에 비벼댄다.

프란츠는 약간 알쏭달쏭하다. 누구라도 그 애에게 말이라도 걸면, "글로켄(중), 글로켄, 글로켄."으로 대답한다. 이 말 뜻은 "중, 중, 중." 같다. 다른 아이들은 이런 특이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데 애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테레사는 졸라가 서 있는 모습을 따라 하거나 졸라의 손을 잡고 떼지 않으려

고 해서 깊은 인상을 주었다. 졸라를 놀리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다. 테레사는 졸라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듯 했다.

저기 스테판이 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지만, 웃기려고 우스꽝스런 얼굴이나 괴상한 소리를 내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닌다. 가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웃지만, 가장 슬픈 눈을 하고 있는 것도 스테판이다.

마누엘은 불에 구운 콩처럼 예측 불허하다. 믿기 힘들겠지만, 소음, 나방, 그림자, 모든 것들을 팔과 어깨에 심지어 머리에 담아 둔다. 마지막으로, 졸라 또래로 보이는 말형 파울로다. 파울로는 머리가 좋고, 망을 잘 본다.

"우리가 음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렴." 졸라가 파울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누구야?" 파울로가 물었다.

"음. 나랑 어. . . 저기 . . . 도우미."

도우미라고? 지금 내가 졸라의 도우미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줘. 더 이상 훔쳐 먹지 말라고.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니까. 먹고 싶은 것은 가져다줄게. 훔쳐 먹지 않기로. 도둑질은 나쁜 거야. 알았지?" 졸라가 말했다.

파울로는 아이들이 쓰는 모든 언어를 소용돌이처럼 퍼부었다. 그런 다음, 슬금 슬금 돌아다니며 훔쳐 먹는 시늉을 하며 모두 알아들었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파울로는 "안돼! 몰토(아주) 나빠! 안돼!" 라며 소리치고, 머리를 때리며,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나빠!"

스테판은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뭔가를 잡은 척하고는 머리를 부딪치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나빠! 나빠!"

테레사는 웃고, 로제타는 울고, 니콜라는 "다정하게 대해 달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다.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어리둥절하다.

정말 길고, 긴 밤이 될 것 같다.

## 시간이란?



사람들은, 왜 이렇게나 강압적인지, 아니, 적절한 말이 뭐였더라, 억지, 아니, 강박, 그래 강박감! 시간에 왜 그리도 강박감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왜 시간을 케이크 조각처럼 쪼개려고 할까,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초, 분, 시간, 일, 주, 년, 10년, 세기, 계속 계속, 똑딱 똑딱, 저기 2초, 2초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뭐라고요? 사람들은 시간이 어디로 가버릴 거라고 생각 한다고요? 어디로 가는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어디로요?

자 보세요. 시계 똑딱 거리는 소리 들리나요? 아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소리만 들릴 거예요. 하늘에 시계라도 보이나요? 나무 위에 달력이라도 매달려 있나요?

즐라는, 계속 나에게 시간에 대해 물어본다. 가령, 아이들은 석탑에 얼마나 머물게 될까? 잠은 얼마나 잘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몇 시간, 몇 분, 몇 시, 언제, 으으, 으아아, 으악!

자자. 좋아. 진정하고. 좋아.

아이들이 화장실을 써야만 했던 어젯밤에 문제가 생겼다. 다행히도, 지하실에 화장실이 있지만, 아이들은 좁고, 삐걱 거리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화장실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번기를 내리면 개구리가 트림하는 것 같다. 밤새 삐걱, 삐걱, 탁탁, 삐걱, 꺼억, 꺼억, 삐걱, 삐걱, 탁탁, 삐걱. 그리고 잠시 조용 했다가 다시 삐걱, 삐걱, 탁탁, 삐걱, 꺼억, 꺼억, 삐걱, 삐걱, 탁탁.

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트림 소리가 들릴 때 마다 포모도로씨가 깡다거나 집안에 강도가 든 것이 아닐까 하고, 또 그 강도가 총으로 진짜 도둑이 아닌 도둑을 쏘아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 아니면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소리일까? 이 기나긴 밤에,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밤이 7~8시간 정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밤 시간이 똑같은게 아니라, 긴 밤과 짧은 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어젯밤은 아주, 아주, 아주, 아

주, 아주, 긴 밤이었다. 다행히도, 포모도로씨는 깨지 않았고, 졸라 역시 배고픈 아이들 걱정에 잠 못 이룰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분홍빛 태양이 산 위로 솟아오르고, 내가 얇고 투명한 해먹에 몸을 누었을 때, 졸라는 좁은 다락방 문을 지나 빵과 치즈를 방으로 가지고 오더니 발코니로 뺄고 달려갔다. 졸라는 흰색과 분홍색과 파란색인 세 겹의 치마를 입고, 녹색 양말과 신발을 신고, 머리엔 여섯 개 아닌 열아홉 개나 되는 리본을 달았다. 여러 분이 생각 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이다.

아이들은 코를 골았다. 음식이 오거나 화장실이 급할 텐데 깨지 않았다. 밤새 계단을 오르내려 피곤했다.

"천사야! 우리 아주 바쁘잖아!" 졸라가 불렀다.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들 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누가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기라도 한다면? 파울로가 아이들이 지냈던 고아원에 대해 말해줬어. 나쁜 고아원. 하지만 여기에 있는 곳은 아니야. 배수로에 살았대. 배수로라니! 이제 계획이 뭐야?"

"계획?" 졸라는 나에게 생각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다음 계획은 뭐야?"

"다음 계획?"

"천사야! 너 듣는 귀가 먹었니?"

그러고 나서, "언제 어찌고 저찌고. . . 언제부터 어찌고 저찌고 . . ." 졸라는 쉬지 않고 말했다. 나는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면서 초원에 있는 염소들과 누워있고 싶어졌다.

## 지상낙원



"봐봐. 분홍빛으로 물든 아침 하늘을 봐. 잠들기 전 하얗고, 부드럽게 비치는 하

얀 달을 봐. 저 멀리 꼭대기까지 하얀 눈으로 덮여 우리를 에워싼 아주 크고 푸른 산을 봐. 초록나무와 누런 벽돌집과 오솔길을 따라 이어진 돌담길을 봐. 숨을 크게 들이쉬어 봐. 하아. 교회의 탑을 봐. 호수에 비친 산자락을 봐, 아직도 청록빛과 은빛으로 빛나. 다시 한 번 숨을 크게 쉬어봐. 하아아아.” 나는 졸라에게 말했다.

졸라는 발코니 벽에 기대어 그 뒤였더라... 스몰링? 아, 스마일! 졸라는 우리 주변에 펼쳐진 지상낙원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졸라야, 사람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만 하고 천국에 산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 같아."

포케타-포케타-포케타-

"으으, 이 시끄러운 소리는 뭐야?" 졸라가 말했다.

"포모도로씨 학교에서 벽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야. 잠깐! 잠깐만!"

"원데 그래?"

"그거야! 굶주린 아이들이 포모도로씨 학교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음, 학교 아이들은 새로 온 아이들과 함께 지낼 거란 생각 못했을거야. 게다가-

"게다가라니! 완벽하잖아! 완벽해!"

"하지만-

"토달지마! 완벽하다니깐!"

"천사야! 아빠는 굶주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을 거라는 수많은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이 학교에 몇 명이 다니게 되는 건데?"

졸라는 눈이 덮인 산을 바라보았다. "확실하진 않아."

"맞혀봐. 대충이라도. 100? 200? 700?"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겠지! 학교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글쎄, 아직 모두가 입학 허가를 받은 건 아니야."

"졸라야, 정확히 몇 명이나 받았어?"

"어디보자. 아마도, 내 생각엔, 넷이 아닐까 싶어."

"400명이라고? 침대는 몇 개나 있는 거야?"

"아니, 네 명이야. 네 명."

"네 명이라고?"

## 아빠들의 성격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다거나 경마에서 돈을 따는 일 외에 아빠들은 깜짝 놀랄만한 상황에서 아주 나쁘게 반응할 수가 있다. 내가 목격한 바로는, 디비노 부인네 남편이 아빠였을 때, 자기 아들이 "아빠, 차가 호수에 빠졌어요." 라고 말했다. 아빠인 디비노씨는 이 같은 놀라운 상황을 싫어하고 질색팔색 한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 엄마들은 거기 서서 말을 하곤 한다. "저기, 자, 진정해요. 워, 워, 창밖으로 의자를 내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쉬이." 이것이 디비노 부인이 터득한 방법이다. 이상한 일은 아빠들이 진정되면,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자식들과 잘 살고 있다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졸라가 포모도로씨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기에 앞서, 나는 아마도 우리가 먼저 그를 준비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기에 그를 진정시켜줄 엄마는 어디 있지?

하지만 졸라가 포모도로씨를 아이들이 빵과 치즈 먹으러 모이는 탑 안에 있는 첫 번째 방으로 모시고 왔을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포모도로씨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꼬마 와우 소년인 조셉이 그에게로 달려가 양쪽 무릎을 붙잡고 말했다. "아빠! 아빠! 아빠!" 그러고 나서 슯기 없는 로제타도 포모도로씨에게 달려들어 조셉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다른 아이들은 순한 강아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포모도로씨는 의자를 창밖으로 던지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아저씨는 아이들의 무릎을 끌어안은 채 버티고 서서 운다. 아주 조금. 숨 죽여.

## 디비노 부인의 성격



지금 내가 디비노 부인과 손자 비니에게 솔방울을 던지고 싶어지게 하거나 살짝 꼬집어주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왜 지켜보기만 하는지 여러분도 곧 이해할거라 생각한다.

나는 디비노 부인이 태어날 때 거기 있었다. 부인의 엄마 뱃속에 끼었을 때 나를 불렀었다. 여기저기 분주한 상황에도, 차분한 분위기로, 산파들이 침착하게 아기를 잘 받아냈다. 그 아이가 마리어나 디푸치노이다. 야무지게 다문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마치 키스하거나 방울을 만드는 것처럼 자그마한 입을 오므렸다. 나는 그 갓난아기가 마음에 들었고, 아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그 옆을 지켜다.

어찌나 재미있는 아이인지, 잔나무가지로 빌려가도 되냐고 나무에게 물어본다 던가, 교회 가운데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요정이나 공룡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모두 다 말해줄 것 같은 아이이다. 그 아이는 가끔 장난꾸러기가 되기도 한다. 초콜릿을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벌레를 집으로 가져오기도 한다. 나는 아이에게 활력을 주고 싶었다. 아주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나는 디비노 부인의 결혼식 때도 있었고, 부인의 아들 마시모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호수에서 차를 잃어버리고, 비행 수업을 받는 등 이 밖에 많은 일들을 보아 왔다. 그리고 나는 마시모가 베틀과 결혼 하는 모습도 봤고, 아들 비니를 가졌을 때에도 보았다. 디비노 부인은 손자가 생겨서 무척 기뻐했었다.

하늘은 푸르고,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마시모는 부모님께 비니와 함께 테라

스에 앉아 얘기를 나눴고, 하늘을 보며, 한 시간쯤 지났을까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디비노 부부와 두 살배기 손자 비니는 오후 내내 테라스에서 바람을 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마치 비행기가 산골짜기 사이를 누비듯이 몸을 돌리며, 웅웅거리는 경비행기 소리를 들었다. 비행기를 보면 열광하는 비니가 박수를 쳤다.

디비노 부인이 알아챘다. "마시모다!" 부인은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부인은 아들의 아내 베티의 노란 스카프를 보았던 것이다. "비니야, 저기 보아라! 저기 엄마, 아빠가 있네!"

비행기는 낮게 날아 디비노가(家)를 향해 내려갔다. 와, 보기만 해도 흥미진진한데! 디비노 부인은 이웃을 불렀다. "이리와요, 이리로, 봐요! 마시모예요!"

비행기는 골짜기 끝으로 날아올라, 솟아오르더니, 정교하게 회전해서 비행장 서쪽을 향했다. 이런 날! 푸른 하늘과 보랏빛 산들이 등직하고, 은빛 호수가 잔잔하고 고요한 날. 바로 그런 날이다!

갑자기 빙-빙, 이상한 소음, 빙-보-빙-빙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쿵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고, 디비노 부부와 이웃들이 소리쳤다, "안돼, 안돼, 안돼!" 어린 비니는 박수를 치고 있었다.

비보-빙-빙 위잉. 모두가 지켜보는 와중에 비행기는 진로를 되찾고, 산 위로 올라왔다. 비행기는 안전한 걸까? 추락하게 될까? 비행장에 착륙 시킬 수 있을까?

모두가 나지막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잘 되었겠지?" 디비노씨가 모두에게 물었다.

디비노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밀가루 한 포대자루처럼, 축 늘어져,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디비노씨와 이웃들은 비행장으로 곧장 달려갔다.

한 시간이 지나고 마시모와 베티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후유!" 마시모는 안도했다 "휴! 천사가 우릴 지켜줬어!"

에휴, 이것야! 그냥 지켜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류를 움직이고 흔들여 소용돌이치게 했다!

"아빠, 아빠!" 비니가 불렀다.

마시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마시모가 불렀다. "어머니?"

디비노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놀라 낮이 나가 있었다. 부인은 2주간 말을 하지 못했다. 부인은 밖에서 웅웅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만 들으면, 귀를 틀어막고 몸을 웅크렸다.

어느 날, 부인이 입을 열었다. "라비올리를 만들어야겠어."라고 말하더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예전과 달랐다. 부인은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럽지만, 부서지기 쉬운 계란 같았다. 남편이 죽고 난 해, 겉은 더 단단해지고, 속은 더 연약해졌다.

지금은 부인의 아들 마시모와 아내 베틀이 미국에 간지 석 달째다. 이 부부는 베틀의 동생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 중이다. 베틀의 동생은 국제학교를 만들고 싶어 한다. 디비노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포모도로씨가 이 곳 스위스에서 국제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부인은 세상사가 요지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포모도로씨는 집으로 가고 마시모와 베틀이 돌아와서 여기서 학교를 열어서, 비니와 같이 지낸다면 디비노 부인도 외롭지 않을 텐데 왜 그러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부인을 보살펴주고 싶다. 내가 부인과 비니를 꼬집는다거나 솔방울을 던지지 않는 이유는 썩썩하고, 쫄쫄 해지고 싶지 않아서이다. 나는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이런 날 말아야!"

## 더 큰 문제



우리는 닭장에서 온 아이들을 탁 안에 데리고 있다. 아이들은 포모도로씨 무릎에 찰싹 붙어있고, 아저씨는 크고 까만 강아지 같은 눈들을 바라보고 있다, 어린 조셉이 말한다, "아빠! 아빠!" 그리고 바깥에서는 포케타-포케타-포케타 작업하는

소리와 멍멍, 멍멍, 멍멍, 멍멍 짖는 소리가 들린다.

포모도로씨는 최선을 다한다. 그는 이 지역의 시장을 만나러 갔지만, 카나리아 제도<sup>4)</sup>로 휴가를 떠났다. 그래서 포모도로씨는 부시장을 찾았지만, 그도 배냇시를 떠나서 자리에 없었다. 그러자, 포모도로씨는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를 내어줄 사람을 계속 찾아 돌아 다녔다.

경찰은 이 문제를 맡기로 했고, 아이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직업상 아이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이들은 경찰이 무슨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우리는 신용 카드 없는데요." 파울로가 말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여권 말이야. 여권."

아이들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경찰은 아이들을 경찰서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울면서 소리쳤다. "아빠, 아빠!" 그리고 밖에서는 포케타-포케타-포케타와 멍멍, 멍멍, 멍멍 짖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경찰은 졸라 아빠에게 공식적으로 일이 해결 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언제쯤 마무리 될까요?" 포모도로씨가 물었다.

경찰은 아이들로 북적이는 탑 안의 방과 지저분해진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안과 밖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라서 말이죠."

## 비니의 드림



아이들은 낡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큰 옥조에서 목욕하고, 머리를 감는다. 물로 흥건하다.

포모도로씨는 여덟 개의 바지와 셔츠와 스웨터와 양말과 속옷을 사기 위해 공

---

4)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에 있는 에스파냐령 화산 제도

항 근처 미그로스로 재빠르게 걸어갔다. 서로 싸울 일이 없도록 똑같은 색으로  
쌌다. 로제타와 테레사는 즐라의 소용돌이 치마를 입고 싶어 했지, 바지는 입고  
싶지 않았다.

디비노 부인이 까사로사의 문을 두드렸다. 즐라가 포모도로씨에게 소리쳤다. "  
디비노 아주머니예요. 머리를 달라고 하시네요."

"뭘 달라고?"

"머리요."

파울로가 번역을 도와주었다. "아주머니 모자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모자 달래  
요. 나쁜 아이들이 훔쳤대요." 그가 말했다. 파울로가 디비노 부인에게 몸을 돌려  
이태리어로 어떤 말을 했다. 그러고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위층으로 올라가서 죽  
은 남편의 모자를 들고 내려왔다.

그날 저녁, 포모도로씨는 가는 길 따라 있는 다양한 까사 앞에 멈추어 서기도  
하면서 새 옷으로 말끔하게 차려 입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을 안내했다.

"몬도포코 부인? 여기 당신 스카프, 맞죠?" 포모도로씨는 길고 흐느적거리는  
팔로 테레사를 쿡 찔렀다. 테레사가 스카프를 건네주었을 때, 부인은 활짝 웃었  
고, 마음에 드는 새로운 선물을 받은 것처럼 스카프를 움켜쥐었다.

"그라치에(Grazie:감사합니다). 몰토 그라치에(Molto grazie:정말 감사합니다)!"  
몬도포코 부인이 말했다. 그러더니 부인은 다시 스카프를 테레사의 목에 걸어주  
면서 말했다. "몰토(더) 낫지, 씨(si:그렇지)? 몰토 잘 어울리네." 부인은 손을 흔  
들며 갔다.

두 명만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다. 폼페이 부인은 니꼴라에게 돌려받은 스웨터  
를 확 잡아챘다. 니꼴라는 발을 쿵쿵 거리며 말했다, "다정하게 대해달란 말이에  
요!" 프란츠가 루비니씨에게 가죽 주머니를 돌려주길 꺼려하자, 루비니씨는 "이  
런! 나쁘구나! 버릇이 없구나!"이라고 말했다. 프란츠는 "글로켄, 글로켄, 글로  
켄." 소리를 내며 끼어들자, 루비니씨는 문을 광하고 닫았다.

포모도로씨와 아이들도 즐라처럼 까사로사로 돌아오는 길에 뿡, 뿡, 뿡-디-뿡-  
소리를 들었다.

즐라는 손을 머리에 갖다 댔다. "아우흐(Auf:또) . . ."

파울로는 위급한 소리를 내면서 디비노가 대문으로 달려갔다. 비니는 포케타

맨처럼 드럼을 쳤다, 아주 빠르게 포케타-뿔, 포케타-뿔-뿔-뿔.

조셉이 물었다, "우와! 바스 이스트 다스?" 그러더니 디비노네 집 문을 향해 돌진 했다. 비니가 구경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금방 아이들에게 돌려 싸여 있었고, 나무 막대기로, 뭘했더라? 드럼스틱? 으로 빠르게 연주했다. 이거 닭 다리가 아니었나?

비니가 빠르게 연주 할수록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브라보! 브라보!"

여러분도 자신감으로 잔뜩 흥분한 비니의 볼과 부엌 창으로 수줍게 엿보는 디비노 부인이 보일 거예요.

## 라비올리



한 밤중에 나는 잠에 빠진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많이 뿔뿔 다녀갔다. 하지만 주로 내가 하는 일은 이게 아니다. 주로 나는 강아지 눈망울을 한 굵주린 아이들의 형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려댄다. 가끔, 그래, 인정하자, 가끔은 아이들이 다정하게 부르는 “아빠, 아빠,” 와 “엄마, 엄마,” 와 “할무니” 와 “할부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뿌린다. 하지만 이 이상 간섭하고 싶지는 않다.

다음날, 정오쯤에, 디비노 부인이 까사로사의 문을 두드렸다. 졸라는 문을 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부인이 뱀이나 민달팽이를 들고 오지는 않았는지 훑어보았다.

디비노 부인이 말했다. "라비올리를 만들었어. 안디아모(Andiamo:가자), 안디아모! 가자!" 부인은 집 쪽으로 걸어갔다. "밤비니(어린이), 라가치(소년)를 위한 라비올리! 안디아모!"

졸라와 포모도로씨를 따라 아이들 모두 비니가 식탁에 접시를 세팅하고 있는 주방으로 졸지어 들어갔다.

"뭘 보고 그렇게 미소를 지어요?" 졸라가 물었다,

"라비올리."

아이들이 먹기 시작하자, 비니는 드럼을 쳤다. 붐-붐-붐디-붐, 붐-디디-붐-디디-붐-붐-붐.

디비노 부인이 활짝 웃었다. "흥을 돋우려고."

붐-붐-붐디-붐, 붐-디디-붐-디디-붐-붐-붐.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라비올리를 남김없이 먹고는 남은 소스까지 빵에 찍어 발라 먹었다, 그리고는 눈이 까만 강아지 같은 눈으로 디비노 부인을 응시했다.

"알았다, 알았어. 내일, 라비올리. 양코라(더). 한번 더!" 부인이 말했다.

꼬마 니콜라는 경의로움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라비올리. 라비올리, 라비올리."

"에코(여기)," 디비노 부인이 말했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단다. 내 남편의 모자를 가져갔던 아이가 이 중에 누구였지?"

아이들은 부끄러워서 발끝만 빨리 쳐다보았다. 방은 조용해졌다.

"말해 보렴."

조셉이 일어났다. "죄송해요. 저예요. 머리는 촘고, 모자는 떠땃했어요."

디비노 부인은 방을 나갔다가, 잠시 후, 모자를 가지고 들어왔다. 부인은 조셉의 머리에 모자를 씌워 주었다. "에코, 니 머리에 더 잘 어울려. 내 남편은 더 이상 모자가 필요 없거든." 부인은 말했다.

아이들이 욕심내기 시작했다. 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죽은 아저씨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더 있나요?" 파울로가 말했다.

디비노 부인은 숨이 턱하고 막혔는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 나서, 푸흐하고, 부인은 웃었다. 호호호 하더니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모두가 웃었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하마. 있으면 알려줄께. 집으로 돌아가렴.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내일 저녁 메뉴도 라비올리라는 걸 기억 하렴!" 디비노 부인이 말했다.

## 미트볼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다. 왜 그런지 나도 당황스럽다. 예전에는 집도 몇 채 없었는데, 아이들이 많았고, 지금은 집이 많아졌지만, 아이들은 줄었다. 젊은 부부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살려고 하려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서두른다. 그리고 나서 부부들은 '그 곳은 완벽할 거야!', '부자가 될 수 있어!', '더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비싼 차를 타게 될 거야!', '보트도 생길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

가끔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우린 자유야!',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들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떠나기도 한다.

나이는 부모를 남겨두고,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젊은 부부들과 토끼 같은 자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떠난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과 양과 염소들을 뒤로 한 채 떠나 버린다.

그 후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가족들이 새로운 도시나 지역에서 머무는 동안, 잠시나마 늦은 새벽에 잠에서 깨거나 가끔 산과 호수와 하늘과 양과 염소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그리워한다.

내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밤새도록 나는 가슴에 무거운 염소를 엮은 것 같은 양털 부츠를 신은 몬도포코 부인, 미국에 있는 아들과 손주가 너무나 그리워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서랍이 양말로 가득찬 루비니씨, 그리고 한 밤중에 파리에 살고 있는 딸을 급하게 부른 폼페이 부인을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탑으로 돌아오고 나서, 오후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먹에서 잠이 들었다. 한 낮이라니! 이 늦잠꾸러기!

나는 디비노 부인네 까사에서 즐라와 포모도로씨와 아이들을 발견했다. 라비올리를 잔뜩 먹고 나서 뒤뜰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 곳에는 긴 테이블 뒤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열두 명의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두가 벼룩시장에 줄지어 있는 모습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모자, 스카프, 글러브, 양말, 미트볼, 초콜릿 케이크, 손전등, 코



바늘로 뜯은 슬리퍼, 인형, 뮤직 박스, 목걸이, 작은 조각상, 축구공, 칠판, 석탄 연필, 칠판, 쌀 푸딩 등으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웃었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에코, 에코." 디비노 부인이 테이블 너머로 팔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파울로가 물었다.

마누엘이 톱톱 뛰면서, 말했다. "이게 목적인거야. 우리가 뭘 훔치려는지 궁금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훔친다면, 우리를 쏘 거예요."

니콜라가 흠쩍이며 말했다. "쏘지 마세요! 제발!"

디비노 부인이 말했다. "아니, 아니야, 안 쏘단다. 너에게 주는 거란다 . . ." 다시 한 번 팔을 뻗어 미트볼과 축구공들과 인형들과 모자들을 집어 팔을 위로 흔들었다. "공짜야! 마음껏 고르렴!"

아이들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포모도로씨는 제일 조용한 로제타를 테이블로 데려와 말했다. "너는 뭘 갖고 있니?"

로제타는 고개를 떨구고, 턱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말했다. "니엔뜨(Niente:없어요)."

"없다니? 이 중에 분명 있을 텐데 목걸이는 어떠니? 응? 아니면 스카프?"

로제타는 고개를 한 쪽으로 기울이고, 턱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조심스레 말했다. "카발로(말)니?"

"안돼!" 스테판이 소리쳤다. "속이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널 쏘거라구!"

로제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포모도로씨 뒤로 숨었다.

어린 니콜라는 졸라 옆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쏘면 안돼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포모도로 아저씨는 디비노 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방금 로제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카발로가 뭔가요?"

"아, 벨라(참), 벨라, 카발로, 씨?" 디비노 부인은 테이블 위로 팔을 뻗어, 장난감 동물 하나를 집으며, 말했다.

로제타는 함박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만지려고 팔을 뻗었다.

"빵!" 스테판이 소리쳤다. "빵야! 빵야!"

로제타는 장난감 말을 움켜쥐고는 스테판의 팔을 쳤다.

프란츠는 테이블 한 쪽 끝에 서서, 축구공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툭툭 쳤다. "글로켄, 글로켄, 글로켄." 잠깐 멈칫 하다가, 슬금 슬금 손가락을 축구공으로 가져갔다.

다른 테이블 다른 쪽 끝에서는, 테레사의 손가락이 쌀 푸딩으로 살금살금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신호가 끊겼고, 모든 아이들이 손을 뺐어, 더듬다가 움켜쥐었다. 마누엘과 파울로는 미트볼을 두고, 마누엘이 낚아채 입에 넣을 때까지 다투었다.

"안돼, 하지마!" 디비노 부인이 말했다.

니콜라는 초콜릿 케이크를 잡아서, 허겁지겁 먹어댔다.

"안돼, 그렇게 먹지 말아라!"

프란츠는 축구공을 집었고, 꼬옥 품에 안았다. 스테판과 조셉은 낚싯대를 갖고 실랑이를 벌였다.

"안돼, 그러면 안돼!"

졸라와 포모도로씨와 마을 사람들은 입을 썉 벌리고 신기한 듯 ‘도대체 어디서 온 생물체들이야?’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결국엔 디비노 부인이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중재를 했다.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미트볼과 케이크와 푸딩 있으니까 지금부터 다른 것들은 싸우지 말고, 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했다.

디비노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물건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마니(내일)에 다시 하자고 했다.

"도마니? 도마니? 아니야, 안돼 오쥐(오늘)! 오늘!" 파울로가 떼를 썼다.

"씨, 씨, 오쥐!"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이태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구호를 외쳤다. "오쥐! 오쥐! 오쥐! 오늘! 오늘! 오늘!"

마을 사람들은 살짝 공포에 질린 듯 했다.

## 졸라의 성격



졸라는,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다. 크고 까만 눈과 쭈뼛쭈뼛 곤두선 머리에 옷을 겹겹이 걸쳐 입고, 가끔은 두목 행세도 하지만, 토끼 같이 상냥한 마음씨를 지녔다. 이 상냥한 마음씨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골칫거리가 된다.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오늘 졸라는 발코니로 기어 올라와서 말했다. "천사야! 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졸라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오늘은 또 뭔데?"

나는 아이들이 오늘은 배고프지 않고, 밤에는 탑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며, 그보다도 까사로사의 다른 방에 아이들의 침대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오늘 아침, 프란츠와 로제타가 폼페이 부인네 개를 산책 시키고 똥까지 치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게다가 테레사와 마누엘은 루비니씨의 쌀 푸딩 만드는 것을 도와준 것과 파울로와 스테판이 디비노 부인과 미트볼을 말았다는 것도 안다. 게다가, 니콜라와 조셉이 축구하는 모습도 보았다.

"천사야!"

"졸라야, 아이들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몬도포코 아줌마 얘기야." 졸라가 말했다.

몬도포코 부인은 양털 부츠를 신고 다니는 할머니이다.

"니가 손을 써야해! 아줌마는 늙었다고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다시 한 번 졸라가 말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럼, 천사야, 너는 어떻게 생각이니?"

나는 졸라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죽는다. 몸의 일부기능이 멈추게 되고, 떨어져 나와서, 아니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였더라, 고장? 몸의 기능이 무너진다. 몸이 삐걱대기 시작하면 제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다.

"천사야!"

"졸라야, 몬도포코 부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부인은 인형을 좋아해."

"인형?"

"작은 인형들이야. 너는 작은 인형들 없니?"

"아니, 인형을 갖고 놀기엔 내가 좀 컸잖아."

"아. 그럼, 몬도포코 부인은 엄청 크신데도 인형을 좋아해. 가끔은 소녀 같은 마음씨를 지니셨어."

졸라는 이 말을 듣고, 어디로 가더니 그릇 닦는 타올과 다양한 색 리본으로 만든 작은 인형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왔다. 아주 사랑스러운 인형이지만 얼굴이 없었다.

"졸라야, 인형에게 눈과 코와 입을 만들어줘야 할 거 같아."

"아, 그러네."

졸라는 잠시 후 파랗고 큰 눈에, 펄럭이는 검은 긴 속눈썹을 지니고, 작은 핑크 빛 입술과 볼을 한 인형을 들고 돌아왔다.

"인형 얼굴이 왜 이래?"

"천사야, 그건 주근깨잖아. 주근깨."

"코는 없어?"

"코는 못 만들겠어."

부인은 주머니에서 낡고 얼룩진 작은 인형을 꺼내 새 인형에게 소개했다. 부인은 인형 목소리를 흉내 냈다.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해주었다. 부인은 박수를 쳤다. 몬도포코 부인 목소리를 흉내 내며, 방금 만든 인형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처음 인형을 새 인형에게 소개시켜주었다.

"차오!"

"차오!"

부인은 이태리어 억양을 흉내 내긴 했지만, 자기 말로 말했다. "만나서 기뻐" 와 "나두!" 와 "나랑 같이 살래?" 와 "너 코는 골아?" 와 "약간." 그리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몬도포코 부인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중에, 졸라가 나에게로 와 흐느끼며 말했다. "난 몬도포코 부인을 좋아해. 무지 좋아한다구." 졸라의 손바닥엔 벽돌의 균형을 맞추는 작은 화강암 돌맹이가 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인형을 만들어줬음 좋겠어."

## 저승

오늘은 일요일이고, 골짜기 사이로 교회 종소리가 가장 따사로운 소리로 동 동 라-동 울려 퍼진다. 까사로사에 사는 아이들은 막 잠에서 깨어났고, 포모도로씨는 팬케이크를 만들고, 졸라는 어디 있더라? 나가려고 하거나 이미 어디로 나갔을 것이다.

디비노 부인은, 분홍색 가운을 걸치고 뒤뜰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종소리를 들었다. 비니는 주방에서 핫 초코를 저었다. 마을 사람 중 한명이 디비노 부인네 대문으로 몬도포코 부인에 대한 소식 다섯 개를 가지고 올 것이다.

내가 지난 밤 몬도포코 부인네 갔을 때, 침대에 누워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손을 가슴 위로 부드럽게 포갠다. 부인의 손은 자신의 인형과 새로운 인형을 보호했다. 부인은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나는 준비 됐다, 인형들아."

부인의 지붕 꼭대기에는 개구리가 자리 잡아 자고 있었다. 개구리가 깨어나 개굴개굴 울고 있을 때, 이동 천사가 오려고 했을 것이다. 나는 그 곳을 지키고 서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이동 천사에게 물어보려고 하지만, 몬도포코 부인의 여행까지 방해할 수 없었다.

아침의 활짝 핀 분홍빛 장미처럼 해가 산 위를 물들이고 있을 때, 나는 발코니에 있는 해먹으로 돌아왔고, 개구리 울음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몬도포코 부인네 까사를 감싼 황금빛을 보았다. 가끔 바로 해가 솟고, 호수를 비추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눈이 저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황금빛이었다. 점점 사라져가는 황금빛을 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눈알

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러자, 빛이 사라졌다.

## 즐라가 알고 있는 것들



즐라가 발코니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해먹으로 쓰러졌다. "아, 천사야!" 즐라가 말했다. "어떻게 참았어?"

"참다니 뭘?"

"몬도포코 부인이 떠났잖아. 부인한테 갔던 거 아니었어?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견딘 거야?"

"그건, 알다시피,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은 백년만년 살 수 없잖아."

"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즐라. 오늘은 노란 치마 위에 초록 치마를 입고, 맨 다리에 보라색 원피스를 그 위에 겹쳐 입었다. 발목엔 오렌지색 리본으로 감싸고, 곤두선 머리를 하고 있다. 손가락 사이에는 가느다란 회색 깃털을 들고 있다.

"즐라야,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방법을 찾으려 하고,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 니가 찾으려는 것처럼 . . ." 나는 말로 모든 것이 얽혀 있다.

"하지만 난 사람들이 아니야." 즐라가 말했다.

"뭐라고?"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구."

"엥?" 내 머리가, 떨어져 나와서, 나무로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너에겐 포모도로씨가 있잖아. 아빠 말이야. . . ."

즐라는 해먹 한 쪽에 걸터앉아 발로 그네를 타듯이 느리게 흔들었다. "아빠가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아니구."

"뭘래?" 나는 지금 내 몸이 뒤집힌 거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널 볼 수 있잖아."

"맞아," 즐라가 무릎에 있는 상처를 긁으며, 말했다 "왜 그러는 거야?"

"그치만.. 그치만.. 에휴! 넌 둥둥 떠다니거나 획하고 이동할 수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좀 완벽하지 않아. 너처럼, 나도 아직 완전한 천사가 아니야."

"뭐라고? 내가? 완벽하다고?" 산이 땅으로 꺼지고 호수가 하늘로 솟은 것만 같다. 어찌되었거나 나는 졸라가 말한 ‘완벽하다’ 는 말은 임무를 계속해서 완수 해오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시대에 뒤쳐졌다는 뜻 같았다. 완벽하다고?

졸라는 손에 있는 리본을 배배 꼬았다. "유지니아, 베데니아." 졸라는 해먹에서 뛰어내려 좁은 다락방문을 미끄러지듯이 통과하고, 회색 깃털을 흔들며, 말했다. "살-라!"

"살-라" 나는 반사적으로 말을 하고 나서, 산들을 둥둥 떠다니면서 염소들과 함께 다시 내 머릿속을 정리했다.

## 염소



세상은 그렇고 그렇다.

어떻게 사람들 중에 천사를 모를 수가 있지? 나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아마 졸라는 훈련 중인 천사거나 나를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게될지도 모른다니! 아주 끔찍해, 최악이야, 불공평해, 정말 오싹해!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는 곳으로 가면 어찌지?

졸라가 천사라고? 천사? 바로 내 탐에서 항상 죽치고 있는 애가, 천사라고? 그 것이 천사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유였던 걸까? 졸라는 진짜 천사이고, 나는 가짜일까?

나는 산에 있던 내 두통거리를 가지고 하늘에 서있다.

아니, 나는 천사야! 나는 획획 날아다니고, 둥둥 떠다니고, 안 보이는 고귀한 존재란 말이야!

하지만 졸라가 천사이기라도 한다면, 그렇다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천사들

은 어디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규칙들도 알아야 한다. 내가 졸라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다.

마치 내 발이 킷속에 있고, 머리는 똥똥 떠다니는 것 같다.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다.

산에 사는 염소들은 서로에게 의지한다. 메에, 메에, 메에에, 편한 방식으로 말한다. 메에, 메에, 메에에. 염소들은 누가 천사이고, 사람인지, 혹은 공평한 것과 무시무시한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 혹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도 걱정하지 않는다. 염소들은 그냥 풀을 뜯고, 의지하고, 메에, 메에, 메에에 울기만 하면 된다.

## 더 많은 사람들



내가 탑으로 돌아온 아침, 여전히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지만, 여전히 까사로사는 북적이고, 시끌벅적하다. 까사안에서 아이들은 잠에서 깨고, 거실에서 축구 드리블을 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포모도로씨와 졸라는 차에 탔다. 그다지 현명한 결정을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파울로가 아이들을 이끈다. 축구공 튕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골대’로 지정된 벽난로 옆에 있던 램프 두 개가 망가졌다.

출씩대는 마누엘은 이쪽 방 끝에서 저쪽 방 끝으로 달리며 공을 차고 있는 큰 발에 시선을 고정했다. "핑! 핑!"

마누엘이 공을 찰 때마다 프란츠가 외쳤다. "글로켄!" 프란츠가 볼을 차고 싶다고 내는 소리이다.

"이건 빌어먹을 글로켄이 아니란 말이야" 파울로가 툭툭 거렸다.

광.

"이런."

스테판의 머리는 바닥 쪽으로, 다리는 소파를 감싼 천을 발로 차면서 몸을 비



틀어 넣었다. 조셉은 다른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포모도로씨의 진흙 묻은 부츠를 신었다.

테레사는 파란 드레스 위에 노란 드레스를 겹쳐 입고, 발목에는 리본을 매달았다. 테레사는 식탁이 있는 방에서 낚싯대를 던지며 놀고 있다.

"내가 낚일 뻔 했잖아. 나한테 던지지마." 니콜라가 말했다.

얇전한 로제타는 슬픔에 잠긴 채 주방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부담을 느끼며 내 머릿속을 지나간 것처럼 갑자기 어질어질 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자기만의 속사정들이 있고, 호기심 대장에다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그들이 없어진 것도 모르기도 한다. 아이들이 빈 서랍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혹은 보험을 위해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빵이나 케이크나 따뜻한 글러브나 부드러운 인형이나 사진이어야 할까? 다정한 말이나 친근한 모습이거나 칭찬이어야겠지만, 이 모든 것을 서랍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나는 아이들이 방황했던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아왔고, 이러한 얘기들로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쥐와 바퀴벌레가 우글대는 종탑 지하실에서 추위와 두려움으로 떨었던 프란츠의 모습이 빠른 영상처럼 희미하게 지나갔다. 나는 작은 니콜라가 카트에서 떨어져 도로 옆 진흙탕에 빠진 것을 감지했다. 마누엘은, 옷장 안에서 커다란 부츠가 그를 발로 차고 있는 영상이 그려졌다.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부담감은 커다란 돌덩이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기분일 게 했고, 나는 그 큰 바위를 치우고 싶었다. 그리고 확확 아주 멀리 빠르게 날아가 아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슬픈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머릿속의 서랍을 초콜릿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로제타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여기 있어. 돌아왔어. 찾으러 왔어." 로제타는 거실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소리쳤다. "그들이 돌아 왔 다구, 이 멍충이들아!"

바깥에는, 뽕뽕 거리고, 포모도로씨와 즐라와 한 여성과 소년과 짐 가방들이 있고, 축복받은 예리한 촉으로 디비노 부인이 걸어오면서 말했다. "누구야? 누가 그러는 거니?"

아이들이 새로운 방문객을 보려고 안달 났는지, 집에서 몰려나왔지만, 경계도

했다. 니콜라는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 경고를 외칠 준비하고 한 쪽에 섰다.

디비노 부인은 길을 헤치고 앞으로 나와 외쳤다. "누구니? 누가 그랬니?"

## 유지니아



특히나 포모도로씨는 긴 다리를 잡아당겨 구부리면서 차에서 내리며, 그의 표정에는 유연하고, 열정적이고, 당황스럽고, 어설픈 표정들이 다양하게 묻어난다. 포모도로씨는 아내 유지니아와 아들 제이크를 소개할 때, 탕탕한 볼을 한 미소와 빛나는 눈으로 주름을 지어 보이며,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디비노 부인은 어린 소년 제이크를 살펴보았다. "졸라의 남동생이었구나! 딱 보니까 알겠네!"

아하!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졸라를 볼 수 있고, 남동생까지 있는데, 천사일 리가 없다, 그렇지?

조셉 또래로 보이는 제이크는 팔로 졸라의 무릎을 감싸고, 스커트에 얼굴을 파묻었다. 졸라는 무릎을 꿇고 으스스하도록 제이크를 안았다. "제이키, 제이키, 제이키," 졸라가 말했다. "보고 싶었어, 우리 지키 제이키."

아하! 졸라는 천사일 리가 없어! 천사는 사람들을 껴안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리워하지 않아, 맞지?

참견쟁이 디비노 부인은 포모도로씨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조금 일찍 올 수 없었나요?"

포모도로씨 부인 유지니아는 주뻗주뻗 곤두선 머리와 소용돌이치는 형형색색의 스커트와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성장한 졸라와 닮았다. 부인은 자신과 까사 사이에 계단을 둘러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 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니콜라가 말했다.

"저어기, 이 꼬마 숙녀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포모도로 부인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봤지? 엄마가 있을 줄 알았어." 디비노 부인은 말했다.

그러더니, 포모도로 부인이 갑자기 이태리어로 디비노 부인에게 말을 했고, 이야기를 듣고, 부인은 너무 놀라 돌담 위에 주저앉았다.

"아니!" 디비노 부인이 말했다. "설마!"

"맞아요," 포모도로 부인이 말을 했다. "스위스!"

"피타씨 딸의 조카라고요? 아래동네 사는 피타씨? 그 피타씨 맥이요?"

"피타 가문이에요."

"세상에나, 그리고 베데니아 피타씨가 숙모라구요?" 디비노 부인은 성호를 그었다.

"그래요, 안티 베데니아예요. 저희는 북쪽에 살았어요. 이곳을 방문 했었구요."

디비노 부인은 귀를 툭툭 쳤다. "기억나네요! 어린 줄라를 많이 닮았었는데 그 령죠? 지금은 건물도 있고, 학교도 만들려고 하고 있네요?"

포모도로 부인은 큰 한숨을 내쉬었다. "아, 네, 그게 . . ."

부인이 망설이고 있을 때, 내가 본 것이 있다. 아들이 탔던 비행기 경고음이 하늘에서 깜빡이고 있을 때, 달걀처럼 하얗게 질린 디비노 부인을 생각했다. 아마도 포모도로 부인에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데, 속은 타고 있지만, 겉으로는 애써 의연한 척 하고 있다. 부인은 가족들이 새로운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있다. 어머니기 때문이다.

엄마들의 성격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파란 양말을 신은 루비니씨가 내 도움이 필요했다.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았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내가 까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유지니아 포모도로씨가 짐가방을 풀어 두 개의 작은 액자를 꺼내는 걸 보았다. 그리고 벽난로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남편의 사진 액자와 부인의 사진 옆에 줄라와 제이크 사진을 두었다. 부인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진심을 담아 손가락으로 눌렀다.

모든 사진에는 많은 지문이 묻어 있었다.

나는 따가닥 따가닥 줄라가 오기 전에 재빨리 탑 발코니로 돌아왔다.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럼, 유지니아가 니네 엄마구나." 내가 말했다.

졸라는 씨익 웃어 보이며, 윈크했다. "유지니아 베데니아."

"정말, 너희 엄마라는 거지?"

졸라는 고개를 천천히 위로 아래로 말처럼 끄덕였다.

"그렇담 넌 고아가 아니라는거네?"

"오늘은 그렇지."

"오늘은 천사인거야?"

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넌 좋은 천사야."

"내가?" 나는 너무 놀라 좁은 다락방 문으로 떨어질 뻔 했다. 단 한 명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 착한 천사라고? 아니, 아니야, 나는 턱하고 말문이 막혔다. "졸라야, 넌 천사가 아니야, 그렇지?"

졸라는 발코니에 기대어 크고, 우직한 산을 바라보았다. 졸라는 마치 산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었다. "내가 천사일까?"

멍, 멍멍, 멍멍멍, 멍-

"에이, 아니야," 졸라가 말했다.

졸라 동생은 짚어대는 개를 향해 달려갔다.

멍, 멍멍, 멍멍멍, 멍-

"제이키, 조심해!" 졸라는 신속하게 좁은 다락방문을 통과해서 기어 내려갔다.

나도 잠깐 거기에 있었다.

멍, 멍멍, 월월, 크르릉, 으르릉-

짚어대던 일 비스토는 몸을 아래로 뒤집어 눕고서는 제이키가 팬시아(배)를 문지르게 했다. 뭐라고 부르더라? 배? 으-으-

디비노 부인은 문 앞에 나와 일 비스토를 쓰다듬는 제이키를 보았다. "제이키 오, 니가 정말 엔젤로(un angelo:천사)구나! 천사야!" 부인이 말했다.

졸라는 나에게 와서 이를 잔뜩 드러내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내 머리는, 달 속에 빠졌나 보다. 모두가 천사인 것일까?

## 비둘기들



그 날 밤 나는 발코니 위를 여기저기 날아다녔고, 머릿속은 사람들과 천사들로 뒤죽박죽이었다. 아침에 포모도로씨는 학교 건물 진행과정을 아내에게 보여주는 동안, 나는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천사들이 아닌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만지고, 쳐다보는 걸 보고 깨달았다.

내가 슬픈 감정을 알게 된 것이다.

파울로와 졸라는 아이들을 도우며 부활절 계란을 예쁘게 꾸미고 있었다. 지금은 8월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걸까? 아이들은 곧 왁스와 크레파스를 섞어서 식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졸라와 파울로가 달걀을 더 가지러 왔을 때, 졸라의 남동생 제이크가 주방 식탁위에 달걀을 으깨고 있었고, 조셉도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달걀 부스러기를 던지고,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가 어우러진 선이 멋있을 거 같아, 탁자의 작은 틈 속을 포격한다. 니콜라의 달걀을 으깨고, 로제타도 똑같이 한다.

제이크는 자기가 으갠 달걀에 재미있어서, 얼굴에 묻힌다. 그리고 조셉은 따라하고, 머리에다 묻힌다. 니콜라는 로제타가 발에 예쁘게 칠하는 동안 귀에 으갠 달걀을 묻힌다. 졸라와 파울로는 주방으로 돌아와 입막대를 끼고 입을 벌린 채 서 있다.

"제이크!" 졸라가 소리쳤다. "니콜라! 로제타! 조셉!"

아이들은 으깨진 계란을 보며 매우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졸라가 말했다. "만약 니가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발그레한 볼이 없거나,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지 않았다면 한 놈 한 놈 걷어차 줬을 거야!"

초저녁 탑 발코니에 있는 좁은 다락방문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천사야, 할 말이 있어."

처음에는 내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졸라는 동생 제이크가 태

어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늘처럼 캄캄한 밤이었고, 하늘도 그렇고, 따뜻한 밤이었지만, 산들은 없었어. 제이크가 예정일 보다 두 달이나 일찍 태어난 거야!"

"졸라야, 나는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를 봐 왔어. 예정일 보다 빠르게. . ."

"우리는 겁이 났어."

"그래, 졸라야, 사람들은 두려워해. 이럴 때..."

졸라는 아빠를 닮은 고무 같은 입을 했다. "천사야, 제발. 말 좀 하게 해주라, 응?"

이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준다기보다는 공감 하면서 졸라에게 좋은 청취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천사야, 우리는 이 작고, 작은 아기, 제이크 때문에 두려웠어. 내가 마침내 아기를 봤을 때, (졸라는 양 손을 동그랗게 모았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제이크는 요거보다 훨씬 더 작고 여린 새였고, 여기 저기 찢러대는 쇠포크를 피해다니는 마르고, 연약하고 불쌍했다."

졸라가 하던 이야기를 잠시 중단했지만, 내가 말해도 될 타이밍인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사야, 인큐베이터 위에, 제이크의 작은 머리맡에, 누군가 금 목걸이나 다른 약세사리의 팬던트로 보이는 천사 모형을 매달아 놓았다. 천사는 인큐베이터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

예상대로 졸라가 나를 바라보자,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오, 인큐베이터에 있는 천사야, 정말 멋진데." 내가 말했다.

"근데, 잠깐만, 내가 여기 서 있는 데, 구석에 있는 방에서 푸른빛의 괴상한 빛줄기가 보였어. 그러더니 그 빛은 천장을 비추고, 뭉뚱했어." 졸라가 말했다.

"개구리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

"뭐? 개구리? 아니, 천사야!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 좀 들어봐"

"알았어, 알았다구."

졸라는 발코니 벽에 기대었다. "내가 갓난쟁이 제이크를 보는 동안, 푸른빛이 나타나더니 모양을 만드는 거야. 나는 눈을 비벼댔어. 천사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모양은 말이야 . . . ."

"왜 내가 정신이 나가? 안 그럴 거야."

"천사야, 그 푸른빛이 말이야, 그게, 비둘기 모양 같았어."

"비둘기?"

"그래."

"비둘기라고?"

"그렇다니까. 가장자리에 솜털이 보송보송 했다니깐. 그리고 여전히 푸른색이 있어. 하지만 아주 편안한 기운을 뿜어냈어. 그때 천사라는 걸 알았지 뭐야."

"천사라고?"

"응."

"졸라야, 비둘기는 천사가 아니야."

"흠, 맞아,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건 천사였어."

"졸라야, 천사들은 비둘기가 아니란 말이야!"

"정신 나간 줄 알았어."

"나 미친 거 아니야."

"미쳤어."

"아냐." 하지만 나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사람들은 천사가 비둘기가 되거나 비둘기가 천사라고 생각하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좀 더 얘기해 줄까?" 졸라가 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말도 안되는 비둘기 얘기는 집어 치우고, 염소들을 보러 산 위를 뚱뚱 떠도는 것이지만,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예의바른 천사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물론이지, 계속 얘기해 봐."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기 제이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일분일초를 다투는 상황이었거든. 매 시간과 하루하루를 이 작은 가슴이 숨이 붙어 움직이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멈추지 마, 계속 움직여야 해.' 그리고 항상 거기엔 푸르고 하얀 빛을 한 비둘기가 있었어."

"그 빛을 비둘기라고 불러야 하니?"

"하지만 나에게는 비둘기로 보였는걸. 생각해봐, 난 여섯 살이었어."

"그냥 '빛'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아?"

"천사야! 비둘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나만 주변을 둘러싼 이 후광이 아름

다운 솜털 보송보송한 비둘기 같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리고 밤마다 매일매일, 비둘기로 보이는 그 빛은 거기 있었어, 제이크를 보호해주는 기분이 들었어. 그건 천사였어."

"하지만 비둘기는 천사가 아니야."

"그냥 듣기만 해, 좀! 나에겐 비둘기 같은 그 빛이 천사로 느껴졌고, 제이크를 보호하고 있었어. 그 빛이 거기에 있어서 기뻐고. 내가 옆에 없을 때에는 더 좋았어. 어느 날, 제이크를 연결했던 선과 모니터는 없어지고, 스스로 숨을 쉬는 거야. 그리고 제이크는 눈을 떴고, 우유병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어. 그러고는 푸른빛은 사라 진거지."

"비둘기."

"그래."

"비둘기는 사라졌구나."

"응."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졸라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져야만 했다. "졸라야? 너는 내가 비둘기랑 닮았다고 생각해?"

## 도마뱀들



여기 산속은 봄과 여름이 도마뱀들의 세상이다. 도마뱀들은 다리와 꼬리가 달린 녹색 벌레처럼 몸통은 작고, 가늘다. 이보다 귀여울 수는 없다. 작은 머리는 이 쪽과 저쪽을 보고, 듣는다. 작은 발은 아주 앙증맞다. 가느다란 꼬리는 아주 길다. 도마뱀들은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고, 사람이나 동물이 가까이 오면, 작은 틈으로 숨는다. 슣. 슣. 얼음. 슣.

한 밤중에 파울로가 졸라를 불렀다.

"로제타가 도마뱀을 먹어버렸어."

"로제타가 뭘 했다고?"



"도마뱀을 먹었다구."

로제타는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 죽어, 죽을 거 같애."

"자, 자, 죽긴 누가 죽어. 어떻게 된 일이야?" 졸라가 말했다.

마누엘은 로제타의 침대를 걷어찼다. "애가 도마뱀을 먹었어. 도마뱀들이 로제타 배를 가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할거야."

로제타가 악을 쓰며 울어댔다.

졸라가 말했다, "로제타, 정말로 도마뱀을 먹었어?"

마누엘이 대신 대답했다. "맞다니깐, 그리고 도마뱀이 밖으로 나오려고 배를 물어뜯어 버릴 거야."

로제타가 악을 쓰며 울어댔다.

졸라는 서둘러 침대로가 로제타를 껴안았다. "로제타, 말해보렴. 왜 도마뱀을 먹은 거야?"

"통째로 먹은 게 아니라, 꼬리만 먹은 거야." 로제타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런 소란에서 잠이 깬 프란츠와 테레사에게 마누엘은 로제타가 도마뱀을 먹었고, 그 도마뱀이 배를 가르고 나올 것이라는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엉말?" 프란츠와 테레사가 말했다.

로제타가 흐느꼈다.

"로제타, 말 좀 해주렴. 도마뱀을 왜 먹은 거야?"

"통째로 먹은 것이 아니야. 그냥 꼬리만, 너무 작고 귀여우니까."

"도마뱀이 니 배를 가를 거야." 마누엘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말도 안돼. 이 작은 도마뱀 꼬리는 누구도 헤칠 수 없어." 졸라가 말했다.

테레사는 몸을 숙이고, 주황색 무릎 덮개를 걸었다.

"너도 도마뱀 먹었니?" 졸라가 물었다.

테레사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구 도마뱀 먹은 사람?" 졸라가 물었다.

프란츠는 배 위에 손을 올렸다. "난 왁스 조금 먹었어."

조셉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침대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난 딱 한 번 거미를 먹어봤어."

나는 발코니로 몸을 돌아왔다. 아이들과 함께한 평범한 밤이었다.

## 시장님



오늘 졸라와 그 아이 가족들과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내 포모도로씨의 학교 건물이 될 옛 피타건물에 모였다. 사람들은 방마다 페인트를 칠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광광 못질을 했고, 짹짹하는 소리와 탕탕치는 소리와 와하는 함성 소리가 들렸다.

비니는 드럼을 가져 왔다. "오락시간!"이라고 말은 했지만, 일하기 싫어서 께부리는 것 같았다. 비니는 드럼 연주만 하고 싶어 했다. 도마뱀을 먹었던 로제타는 비니 옆에 찰싹 붙어, 창틀 위를 손가락으로 튕긴다.

목에 짧은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팔목을 파란 리본을 감싼 디비노 부인은 학교 건물 새 주방에서 그릇과 냄비를 던졌다. 그리고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내며 그릇 정리를 동안 욕을 쓰면서 포모도로씨가 마시모와 베티와 얘기를 해서 모두 함께 학교를 열었으면 비니와 마시모와 베티가 여기서 함께 지낼 수 있었을 거라고 졸라엄마와 재빠르게 이태리어를 섞어가며 얘기한다.

"여기가 내 자식들이 있어야할 곳이에요. 여기 말이죠! 그렇죠? 아무렴 그렇겠지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희망이 솟구쳤다. 이 느낌을 어떻게 말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난 음식을 먹지 않지만, 먹게 된다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기분일 것이다. 그런데 난 그 기분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다량의 음식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먹고 만족에 겨워했지만, 여전히 며칠이고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이 있었다. 아마 이런 기분일 거다. 나는 모르겠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뭐라 설명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페인트칠을 하고, 청소를 하는 기분 좋은 소란들 속에 휴가를 마친 자피노 시장님이 다투러 오셨다. 시장님은 눈과 코와 배가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사람 성격의 사람이다. 시장님은 두꺼운 봉투를 가지고 와서 포모도로씨에게 면담요청을 했다.

"아이들은 돌아가야만 합니다! 학교를 열지 않을 거니까요!" 시장님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포모도로씨가 말했다.

"허락 못해요! 페싸포르토스(여권)도! 스켈라(학교)도 안되요!" 자피노 시장님의 볼이 그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해 주었다.

포모도로씨는 얼굴을 찌푸렸다. "시장님, 저희에게 허가증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손가락으로 셔츠의 깃을 치켜세웠다. "자피노! 자피노 시장님!"

디비노 부인이 냄비를 흔들며,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바보 같은!"

아이들은 무서웠다. 아이들은 몰래 문밖으로 나가서, 건물의 한 쪽 끝으로 살금살금 움직였다. 나는 바위로, 탑으로, 나의 탑으로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의 머릿속으로 확확 들어갔다.

곧 아이들이 탑의 낮은 방으로 모였다. 아이들은 조용히 서로서로 꼭 붙어 있다. 니콜라는 팔짱을 낀 채, 방 한가운데에 완고하게 서있다.

졸라는 좁은 다락방문으로 기어 올라가 말했다. "천사야!" 졸라가 말했다.

"알아, 알고 있어, '어떻게 좀 해봐!' 이 말 하려는 거잖아, 맞지? 왜 항상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니가 좀 해보지 그래?" 내가 말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회색 깃털이 푸드덕 거리더니, 불쑥 튀어나온 탑 발코니에 비둘기가 앉았다.

그랬다. 비둘기였다.

졸라는 나를 보았다. 나도 졸라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같이 비둘기를 보았다.

윤기 나는 부드러운 깃털이 위에는 회색빛이지만, 그 아래는 여러 가지 붉은 빛과 초록빛으로 빛났다.(눈부시게 빛이 난다' 라는 말이 맞나?) 비둘기가 머리를 움직일 때, 다양한 빛깔들이 뿜어져 나왔고, 불이 꺼지면 부드러운 깃털이 반짝여서, 새들이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푸르고 하얀 빛은 비둘기를 감싸며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뭐라도 좀 해봐!" 비둘기에게 말했다. 비둘기가 울자, 강한 붉은 빛과 초록 빛 깃털이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살짝 걱정 되었다. 만약 이 비둘기가 내 상사이기라도 하면 어쩌지? 천사 대장이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내가 비둘기들이 천사가 아니라고 믿지 않는다 해도, 그때 있었던 비둘기는 천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졸라에게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봐야겠어. 너와... 그리고... 비둘기랑 여기에서 아이들을 보살피자, 알았지?" 그리고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으로 섬광을 뿜어대며, 확하고 나갔다. 나는 비둘기가 강한 힘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 루이

디비노 부인은 자피노 시장님 팔을 찰싹 때렸다. "친절하신 니 어머니가 지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 하겠니? 그만 좀 하렴."

나는 이 두 사람 머릿속으로 획 들어갈 준비가 되었지만, 그러기 전에, 유지니아 포모도로 부인이 한 손에는 밀대를 들고, 다른 손에는 칫솔을 들고 왔다. 부인은 시장님을 응시했다.

"루이? 당신 맞아?"

디비노 부인에게 맞은 팔을 부비고 있는 자피노 시장님은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랐다. "누구십니까?"

"루이! 당신 맞네!"

시장님의 눈은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았다. "유지니아?"

"루이!"

"유지니아!"

포모도로씨는 발언권을 얻으려는 듯이 손을 들었다. "유지니아?"

포모도로 부인은 남편이 손을 들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부인은 시장님을 만난 것이 기뻐했다. "루이, 루이!"

"유지니아, 유지니아!"

자피노 시장님과 포모도로 부인은 포옹하더니 오른쪽, 왼쪽, 오른쪽 볼을 번갈아 키스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유지니아?" 포모도로씨는 한 번 더 불렀다.

쭈뼛쭈뼛 곤두선 머리를 한 유지니아 포모도로씨는 옛날 학교 동창 루이 자피노씨를 남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우리가족이 제네바에 살 때 루이는 3년 정도 살았어요. 루이, 루이! 내 친구 루이!"

자피노 시장님은 붉게 상기된 얼굴과 목에 빨간 립스틱 자국까지 더해졌다. "여기 포모도로씨가 당신 남편이야?"

"응." 유지니아가 말했다.

"이건 당신 건물이고?"

"응, 안띠 베데니아가 물려주셨어."

"아, 안띠 베데니아," 시장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거기 놀러 가면 숙모님이 감초 과자를 주셨지, 기억나?" 시장님은 갑자기 이곳에 온 본래 목적이 생각났다. 시장님은 목을 길게 빼서 키가 커보이도록 했다. "정말 미안하지만, 고아 아이들은 불법이라서 돌아가야만 . . ."

졸라는 팔을 흔들며, 옆문으로 들어왔다. 졸라는 큰 결심을 했다. 파울로가 졸라 뒤를 따랐다.

"시장님," 졸라가 말했다.

파울로가 졸라를 따라했다. "시장님."

시장님은 계속 포모도로 부부와 이야기 중이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들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 . ."

졸라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파울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시장님."

"왜? 왜 그러는 거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시장님 볼이 달아올라, 울그락 불그락 해졌다.

"저는 졸라예요."

"저는 파울로예요."

시장님은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업무 중이라 바쁘니 방해하지 말아라."

졸라는 천장에서 바닥으로, 엄마한테서 아빠로, 마을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재빨리 움직이며 눈짓했다.

"시장님, 지금 우리가 하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졸라가 말했다.

"원데 그러는 거니? 빨리 좀 얘기해라! 난 할 일이 있..."

"시장님, 라비올리 좀 드실래요?"

"라비올리?"

졸라는 디비노 부인을 향해 돌아섰다. "디비노 아주머니, 오늘 아침 최고로 맛있는 라비올리 만들어 주셨잖아요. 시장님도 맛을 보시게 하면 어떨까요?" 졸라가 디비노 부인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눈짓으로 눈썹을 찡긋 거렸다.

디비노 부인은 뺨비를 흔들었다. "라비올리를 대접해드려야겠구나. 안 그러겠다면 머리를 한 대 쳐주던가 해야겠군."

## 이런 날



이런 날, 정말 이렇게 좋은 날!

포모도로씨와 디비노 부인과 마을 사람들은 자피노 시장님의 배를 라비올리로 가득 채웠다. 포모도로 부인은 어린 시절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로 시장님의 기억을 가득 채우자, 시장님은 학교를 위한 모든 허가를 내주었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생활 수 있게 해주었다. 완벽하군! 나는 시장님의 머릿속에 살짝 다녀갔을 뿐인데, 시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정작 마을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인상 깊은 일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배수로에서 지내지 않게 될 것이고, 음악 소리로 가득한 축제 속에서 젓가락이나 머리빗이나 숟가락을 주워서 북을 치지 않아도 된다고 안도했다. "야호, 여기서 산다! 글로켄, 글로켄, 글로켄! 앗싸, 안 가도 돼!" 여기는 뽐뽐 드럼 소리와 썩그랑 종소리와 환호 소리와 딸까닥 소리로 아주 시끄러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비둘기와 닮지 않았다는 얘기를 졸라에게서 듣고 안도했다. 탐으로 날아왔던 비둘기는 갈 곳 잃은 깃털과 하얀 배설물만 남긴 채 사라졌다. 만약에 그 비둘기가 천사였다면, 스스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을 것이고, 천사가 아니었다면, 비둘기라는 이유 하나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

게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비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 천사가 아는 것



산중턱을 가로질러 오솔길들과 좁은 길들의 한 면을 따라 돌담들이 둘러져 있다. 여기 돌담은 길에서 떨어지거나 사람들로 인해 투박한 진흙이나 바위가 된다. 돌담과 담들 여기저기에 보기 좋은 문양과 같은 구멍들이 났다.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벽에 난 구멍. 각각 벽돌의 크기일 수도 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나는 이 구멍들을 너무나 좋아한다. 줄기차게 비가 내릴 때, 물이 슬쩍 빠져 나간다. 사람들이 담 위에서 일광욕을 하는 도마뱀을 만지려고 할 때, 도마뱀은 그 곳으로 달려가 몸을 숨긴다. 사람들은 보라색과 차분한 자주색과 파란색과 흰색 꽃을 심어놓고, 단단한 돌담에서 이 꽃들이 핀 것을 보고 놀라워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비밀 노트나 작은 보물을 숨길 수 있는 구멍으로 더 좋아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구멍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쪽지와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구슬로 만든 팔찌와 숨겨둔 솔방울과 부드러운 조약돌을 볼 수 있어서 좋아한다.

언제였을까, 십년 혹은 이십년 전, 구멍은 더러운 벌레와 도마뱀을 빼고는 매마르고 텅 비어 있었다. 지금도 쪽지가 꽃혀진 구멍과 빨간 천 조각이 들어있는 구멍이 보인다. 나는 폼페이 부인의 집 파란 초인종 소리가 회색 성벽을 감싸며, 울려 퍼지는 소리도 보인다. 그리고 비니 디비노와 조셉과 제이키가 구멍을 막대기로 쿡쿡 찌르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보인다. 나는 글로켄 꼬마 프란츠가 죽은 쥐를 집어 들어 벽돌 구멍으로 쏘서 넣고서는, 조심스럽게 두껍고 나풀거리는 나뭇잎들로 그 입구를 막았다. 프란츠는 이파리 한 장을 떼어내서, 잔 나무 가지에 X표시를 새기고 다시 돌아와 구멍을 살핀다.

아이들은 조용한 마을을 장난치듯이 살살 간질이며, 다시 일깨워서 생기발랄하

게 만들어 준다. 산에서 떨어지는 마법의 가루 같다.

나는 담 구멍들이 보물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면서도, 돌아오거나 가거나, 이미 돌아왔거나 이미 떠나간 모든 아이들과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며 갑자기 슬픔이 밀려온다. 사람들 곁에서 쉼 없이 움직이며, 안전하기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다.

가끔 나는 마을을 쳐들어온 침입자들과 이미 싸울 준비로 단단히 무장한 산과 단단한 바위가 된 것 같다. 그런데 난 칼 한 자루조차 없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놀라움의 연속이지만, 가끔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산 같은 기분이 들게 하기도 한다. 니콜라가 파란색과 청록색 큰 블라우스에 노란색 스커트를 입고, 허리에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작은 팔을 앞으로 뒤로 흔들며, 까사로사 잔디밭은 가로질러 오는 것이다. 꼬마 숙녀는 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노래를 흥얼거린다. ‘난 주치니(zucchini:애호박), 주치니, 주치니가 싫어. 나는 이 질척거리는 초록색이 싫어. 질척거려, 질척거려.’ 그리고 니콜라 손에는 젖은 냅킨 위에 초록색 질척이는 것을 들고 있다. 꼬마 숙녀는 치마에 손을 쓰윽 닦고는 도마뱀이 달려가는 가장 가까운 벽 틈으로 질척이는 것을 꽂았다. 그리고 다른 구멍으로 빠지기 전까지 따라왔다.

아이들.

아무생각 없이 구멍을 보면서, 담을 손으로 쓸며 골목길을 활개치고 다니는 파울로가 보인다. 파울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소매를 흘깃 보았다. 다시 파울로는 이쪽저쪽을 보더니, 구멍 속에 손을 넣어 종이쪽지를 훑어 꽂았다.

이 걸 어떻게 안 볼 수 있겠는가? 종이에 한 사람 이름만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졸라 졸라 졸라 졸라 졸라 졸라. 그랬구나, 파울로야.

그 길 위쪽에서는, 졸라가 오른쪽 담 구멍만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있다. 이쪽 구멍이 아니라 저쪽 구멍을 보고 있다. 아, 저기 하나 있구나, 저 위에. 주머니에서, 하얀 물건을 재빨리 꺼내서 구멍 안에 넣는다. 졸라는 이끼 한 줌을 뽑고서,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 내가 너무 수다스러웠다. 졸라가 떠난 후,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팔이 떨어져 나간 작고 하얀 천사 조각상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줄 물건들을 셋길에 있는 긴 테이블 위에 모아놨던 것이다. 팔을 잃은 불쌍한 어린 천



사야.

나는 탑에서 마을의 돌로 지은 건물과 벽과 까사와 사람들과 동물들을 살폈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마을이 내 영역이니까. 내가 원하면 사람들 머릿속으로 쓱쓱 들어가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따뜻한 생활을 하면서 굶지 않도록 지내게 할 수 있다. 나는 밤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디비노 부인과 비니를 보살피고, 필요할 때, 솔방울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일 비스토는 그냥 트럭에 치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해본 소리였다. 하지만 비니가 멍멍이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졸라가 내 탑에 오는 것이 즐겁다. 이 아이의 에너지가 되고 싶다. 때로는 사람들은 천사가 필요하지만, 천사도 사람들이 필요하다. 또, 나는 아이들이 우리 마을로 오는 것도 기쁘다. 가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찾기도 한다.

물론, 이곳에는 포케다-포케타, 붐-붐-붐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로 북적거릴 것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참 어설프다!

아. 사람들이여! 천사들이여!

## 참고문헌

### 1. 국내서

- 김효중(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김주란(2000), 「국어 문장 표현법」, 학문사.  
최정화(2001), 「통역 번역 노하우」, 넥서스.  
김정우(2001), 「이솝우화와 함께 떠나는 번역여행」, 00출판사.  
이석규(2002), 「우리말 답게 번역하기」, 역락.  
박상익(2006), 「번역은 반역인가」, 푸른역사.  
이종인(2009), 「번역은 글쓰기다」, 즐거운상상.  
이희재(2009), 「번역의 탄생」, 교양인.

### 2. 번역서

- つじ 由美 저/ 이희재 역 (2001), 「번역사 산책」, 궁리.  
Roger T. Bell 저/ 박경자 역(2001), 「번역과 번역하기」, 고려대학교 출판부.